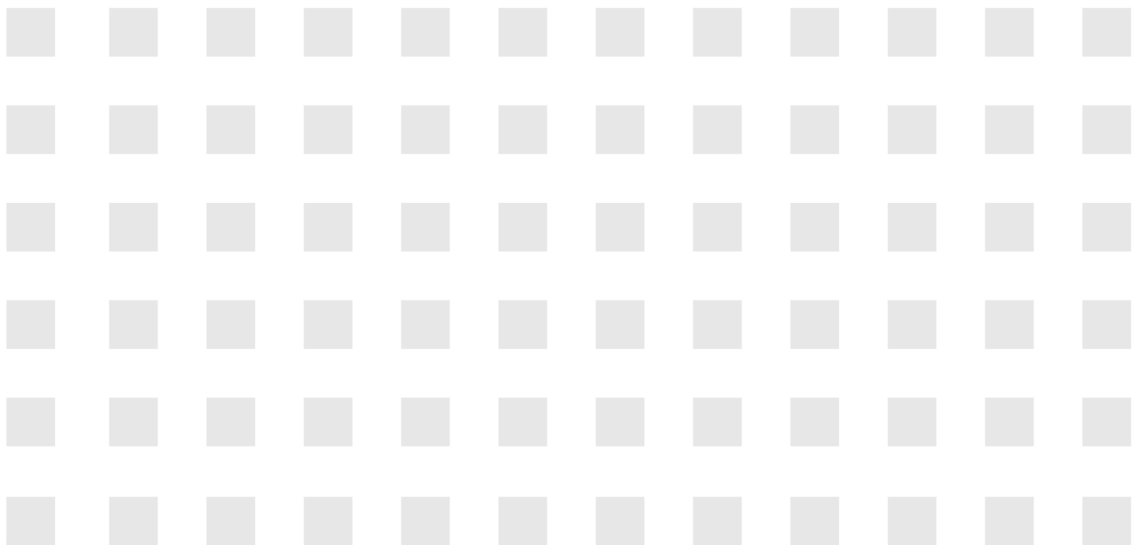


#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

—  
조성윤





## 발 간 사

동양척식회사는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동양척식회사는 자국 일본의 에너지 정책, 특히 석유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던 제주도 개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주도 내에 주정공장을 세웠습니다.

동양척식회사가 제주항 바로 앞에 설립한 주정공장은 일제강점기에 제주도에 들어섰던 가장 큰 규모의 근대식 공장입니다. 제주도 경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공장으로, 이 공장은 일본의 제주도 지배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제주도 최대 규모의 공장으로서 가장 많은 직원과 공원을 고용하고 발전기를 갖추어 한동안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 당시에는 많은 제주도민을 수용하던 장소로, 제주 근대사의 아픈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의 거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정공장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니다. 주정공장이 왜 들어섰는지, 제주도민에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 곳인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 센터의 ‘2022 제주학 연구비 공모 지원 사업’의 과제로 선정된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은 제주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 주정공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구를 위해 직접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며 애써주신 조성윤 명예교수님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연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센터 고은솔 연구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2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 목 차 CONTENTS

I. 머리말 .....	1
II. 기존연구와 자료 .....	3
1. 기존 연구 .....	3
2. 자료 소개 .....	4
III. 제주도 주정공장 건설의 배경 .....	9
1. 제국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무수주정 .....	9
2. 조선총독부의 제주도 개발정책과 무수주정공장 .....	13
3. 조선기계소주연맹 .....	15
4. 동척에게 몰아주기 .....	17
IV. 동양척식회사의 주정공장 건설 과정 .....	19
1. 조선총독부의 제주항확장과 공장부지 .....	19
2. 전라남도의 매축과 정지작업 .....	21
3. 동척의 공장 건설 계획과 사업승인 .....	22
V. 주정공장의 조직과 운영 .....	27
1. 직원 구성 .....	27
2. 공장 배치 .....	29
VI. 해방 후의 주정공장 .....	32
1. 해방 후 주정공장의 소유와 운영 .....	32
2. 제주4·3과 주정공장 .....	37
3.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제주주정공장의 운명 .....	39

Ⅷ. 맺는 말 .....	42
참고문헌 .....	44
ABSTRACT .....	47

## 표차례

〈표 2-1〉 일본국립공문서관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주정공장 자료 .....	6
〈표 2-2〉 일본외무성의교사료관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주정공장 자료 .....	7
〈표 2-3〉 주정공장 회계감사보고서 .....	8
〈표 3-1〉 제주도 개발회사 자금 소요액 .....	14
〈표 4-1〉 1939년도 이후 국고보조 향만공사 계획서 .....	19
〈표 4-2〉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제주도무수주정사업 인가신청 .....	22
〈표 4-3〉 제주 주정공장 건설 예정표 .....	23
〈표 4-4〉 제주주정공장 건설공사 공정표 .....	24
〈표 4-5〉 무수주정사업을 부탄울사업으로 바꾼다는 경영변동 신청서 .....	25
〈표 5-1〉 제주주정공장 건설사무소 직원 명단 .....	27
〈표 5-2〉 조업식 순서 .....	28
〈표 6-1〉 해방 직후 제주주정공장의 직원 배치 .....	35

## 그림차례

[그림 1-1] 주정공장 터의 4·3희생자 기념탑 .....	1
[그림 1-2] 주정공장 터의 4·3희생자 기념관 .....	2
[그림 5-1] 제주향과 공장부지 배치도 .....	29
[그림 5-2] 공장부지 배치도 .....	30
[그림 5-3] 공장부지 배치도 .....	31

# I. 머리말

제주항 바로 앞에 있는 주정공장 터에는 현재 4·3희생자 기념탑이 서 있고, 기념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터를 제주도가 매입했고, 2021년 기념관 현상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되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2년에 이미 기념관 건물은 지어져 있지만, 언제 개관할 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이곳에 4·3희생자 기념탑이 들어서고 기념관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4·3 때 주정공장 창고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을 집단 수용했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곳에 수용되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집단으로 형식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목포, 대구, 대전, 서울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갔다. 또 일부는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이 들어선 자리인 정뜨르 일본 육군 비행장에 끌려가 집단 처형당한 채, 매장되었다. 또 일부는 산지부두에서 배에 실려 앞바다로 가서 발에 돌을 매달아 수장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곳은 4·3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이며, 따라서 4·3희생자를 기억하는 기념관을 짓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나는 주정공장 터에 기념관을 지으면 4·3의 역사만 설명해도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4·3희생자 기념관 전시에 앞서, 주정공장이 무엇이고 왜 이 자리에 주정공장이 들어섰는지, 주정공장은 제주도민에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지 등의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정공장 창고를 수용소로 사용했다면, 공장에는 어떤 종류의 설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고, 창고는 몇 개가 어디에 있었고, 창고의 크기는 어땠는지 정도는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



[그림 1-1] 주정공장 터의  
4·3희생자 기념탑



[그림 1-2] 주정공장 터의 4·3희생자 기념관

고 주정공장이 누가 무엇을 하던 곳이고, 이곳을 왜 수용소로 사용했는지를 설명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주정공장 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알려줄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한 주정공장이 4·3희생자를 기억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일제 침략기에 제주도에 들어섰던 가장 큰 규모의 근대식 공장으로, 제주도 경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공장이고, 이를 통해서 일본 제국의 제주도 지배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본다. 주정공장은 제주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동양척식회사가 제주도에 주정공장을 설립하게 된 경위를 먼저 밝히려고 한다. 그리고 일제 말기 제국의 경제 틀 속에서 주정공장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생각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주정공장은 어떻게 소유 주체가 변동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정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정공장의 역사가 제주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 잡게 할 생각이다. 나아가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4·3의 아픈 역사 속에 무대로 등장한 주정공장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싶다.



## II. 기존 연구와 자료

### 1. 기존 연구

동양척식주식회사<sup>1)</sup>는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유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석주 의사는 서울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 건물을 폭파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1926년 12월 28일 자신이 각 건물에 들어가 폭탄을 던지고, 일본 경찰을 살해 한 후, 자신의 가슴에 권총 3방을 쏘아 자결 바 있다.<sup>2)</sup>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관해서는 많은 논문과 저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여 일본인들을 이주자들에게 분배하고, 지주로서 조선 소작인들을 수탈한 실태와 이에 저항했던 조선 소작 농민들의 투쟁이라는 주제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sup>3)</sup> 반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다양한 활동, 이를 테면 중국, 태평양,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sup>4)</sup> 그리고 이 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연구가 일부 있지만, 본격적으로 연구한 국내 저서는 보이지 않는다.<sup>5)</sup>

- 1)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가 자주 등장할 경우에는 줄여서 '동척(東拓)'이라고 사용할 것이다.
- 2) 김성민, 2019, 「나석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51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21, 344, 348쪽.
- 3) 강태경, 1995, 『(東洋拓殖會社의) 조선경제 수탈사』, 계명대학교출판부.  
權寧旭, 1968, 「東洋拓殖株式會社と宮三面事件」, 『朝鮮研究』 8, 朝鮮學會.  
김대래, 2004, 「東拓移民의 전개와 한국인의 대응」, 『경제경영연구』 5집, 신라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김석준, 1986,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업전개 과정」,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2집』, 문학과지성사.  
손경희, 2002, 「1920년대 경북지역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인 농장경영」, 『계명사학』 13집, 계명사학회.  
安秉珪, 1976, 「東洋拓殖株式會社の土地收奪について」, 『社會科學年報』 7, 龍谷大學社會科學研究所.  
안병태, 1982, 「조선인 지주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경영방식의 차이」, 『한국 근대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백산서당.  
李圭洙, 2000,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소유관계의 변동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집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이규수, 2021,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수탈과 궁삼면 토지 탈환운동」, 동북아역사재단.  
조기준, 1977, 「日人 農業移民과 東洋拓殖株式會社」, 윤병석 외 편, 『한국근대사론 I』, 지식산업사.  
최원규, 2000, 「東洋拓殖株式會社の 이민사업과 동척이민 반대운동」, 『韓國民族文化』 제16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4) 조정우 2018, 「지역조사와 식민지의 경계지대 —1919년 전후 동척과 조선은행의 간도조사—」, 『만주연구』 26호, 만주학회.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제주에 건설한 주정공장을 다룬 논문 역시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정공장에 대해서 간략히, 또는 부분적으로 언급한 연구를 먼저 정리하기로 한다. 제주도의 주정공장에 관해서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던 연구자는 고영철이다. 그는 제주향토사 연구자 입장에서 지금은 건물이 모두 사라진 주정공장 터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글을 신문에 실어놓았다. 조선총독부와 전라남도가 추진하던 제주도 개발계획에 관해서는 진관훈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그는 이 계획이 어떻게 동양척식회사의 주정공장 설립으로 넘어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해방 후 주정공장이 어떻게 민간에 불하되고 마지막까지 이어졌는지는 고광명의 논문에 일부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주 산지향 축항 과정을 연구한 현지애의 논문이 나왔는데, 주정공장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주정공장이 제주에 건설되게 되는 정책 결정과정과 조선총독부가 직접 나서서 제주항 확장 공사를 추진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이 네 연구자의 글을 토대로 연구를 시작했음을 먼저 밝힌다.<sup>6)</sup>

## 2. 자료 소개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할 자료는 당시 신문 기사와 조선총독부,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남긴 서류들이다.

먼저 1937년부터 시작된 조선 내의 무수주정공장 건설 논의와 이 사업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제주도에 설치하기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주로 당시 조선 내에서 발간되던 신문들을 통해서 볼 것이다. 당시의 신문 중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조선일보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보기 편하게 작업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 밖의 매일신보 등의 기사는 국립도서관

5) 최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단행본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연구가 나오고 있다. 배석만과 조명근의 연구가 그렇다.

배석만, 2014, 「전시체제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동원 구조와 투자동향 분석」, 『지역과 역사』 No.34, 부경역사연구소.

조명근, 2020, 「戰時期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 조달과 운용 실태」, 『亞細亞研究』 63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연구자들의 연구는 다음을 볼 것.

河合和男 外, 2000, 『國策會社-東拓の研究』, 東京, 不二出版.

黒瀬郁二, 2003, 『東洋拓殖會社-日本帝國主義とアジア太平洋-』, 日本經濟評論.

6) 진관훈, 2004, 「일제하 제주도 개발」,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도서출판 각.

고영철, 2020, 「동척회사.건입동 주정공장(무수주정제주공장)&육군 제5훈련소 터」, 『제주환경일보』 2020년 3월 28일.

고광명, 2015, 「재일(在日)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일본근대학연구』 제50집, 한국일본근대학회.

현미애, 2020, 「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향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의 고신문 서비스에서 볼 수 있었다.

한편 조선총독부가 1937년 제주도 개발계획에 관해서 남긴 자료가 한국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다. 조선총독부의 「국고 보조 제주도개발에 있어서 토목사업계획」이라는 기록철이 그것이다.<sup>7)</sup> 이 기록철에는 조선총독부가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려고 구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무수주정 공장을 건설하려고 고집했던 조선총독부의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서류 중에서 제주도 공장에 남아 있던 서류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동경본사 서류는 남아 있다. 제주도 공장이 동경 본사가 직영했던 공장이기 때문에, 제주도 공장 책임자는 공장 운영에 관한 중요 서류를 동경본사에 보냈고, 동경 본사는 관련 내용의 지시사항을 서류로 만들어 보냈다. 급한 사항은 전보를 이용해서 주고받았다. 제주도 공장의 서류는 혼란 속에 모두 사라졌지만, 동경의 서류는 미군정의 지시로 고스란히 보관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주정공장 관련 자료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그 이유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본사가 경성이 아닌 동경에 있었고, 이 회사는 미군 GHQ에 의해 폐쇄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문서가 모두 정리위원회로 넘어가 청산작업이 이루어졌고, 청산작업이 끝나고 회사가 해체된 다음에는 대부분의 서류들이 공문서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sup>8)</sup>

일본 동경 교외에 있는 일본국립공문서관(日本國立公文書館) 츠쿠바 분관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생산했던 수백 건의 서류철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주도의 직영 주정공장 관련 서류철만도 40건이 넘는다. 이 자료들은 얼마 전까지 이용제한구분(利用制限の区分) 항목에 ‘요심사(要審査)’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公開’로 바뀌었다. ‘요심사’는 심사를 해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공개는 열람 신청을 하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내주겠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직접 동경에 있는 국립공문서관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열람과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인하고 9월 한 달 동안 동경에 머물면서 직접 자료를 열람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이 서류에는 제주도 주정공장의 초기 설계도부터 공장 배치도, 공사

7) 기록철(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15330)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물건이 있다.

- 제주도토목사업비국고보조품산-전남
- 제주도개발토목사업계획서(도면첨부)
- 제주도개발도로공사계획(도면첨부)
- 제주도개발지하수조사계획(도면첨부)
- 제주도개발수력발전계획(도면첨부)
- 제주도개발계획에관한건
- 제주도개발계획개요
- 소요경비내역명세

8) 村上勝彦, 1997, 「第6部 閉鎖 機関 閉鎖機関について - 「閉鎖機関とその特殊清算」を中心に, 『1940年代の東アジア: 文献解題』,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335-349쪽.

진행과정, 기타 다양한 관련 사항이 담겨 있었다.

〈표 2-1〉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주정공장 자료

청구번호	문서 이름	기간	수집
財001501988	濟州島酒精事業に関する書類(その1)	1938 이전 것.	○
財001501989	濟州酒精工場(その2)	1938.09.01. ~ 1939.09.30.	○
財001501991	濟州酒精工場關係	1939.01.01. ~ 12.31.	○
財001501992	濟州酒精工場機械設備關係	1939.07.04. ~ 12.08.	×
財001501993	濟州酒精工場建築關係	1939.04.01 ~ 12.31.	○
財001501994	濟州酒精工場給汽, 空氣濾過, 給水裝置設備図綴	1939.04.01. ~ 1940.03.31.	×
財001501995	濟州酒精工場關係	1939.08.01. ~ 1940.09.30.	×
財001501996	濟州島酒精工場敷地關係(その1)	1939.01.01 ~ 1940.05.31.	○
財001501997	濟州酒精工場機械設備關係(その2)	1939.12.01. ~ 1940.04.30.	×
財001501999	濟州酒精工場電氣設備図	1940.01.01. ~ 1940.12.31.	×
財001502000	濟州酒精工場敷地關係	1940.01.01 ~ 1940.12.31.	○
財001502001	濟州酒精工場酒精貯槽, 蒸餾機醪酵槽查定槽図面	1939.04.01 ~ 1940.03.31.	×
財001502002	濟州酒精工場醪, 酒精輸送裝置設備図	1939.04.01. ~ 1940.03.31.	×
財001502003	濟州工場關係資料(酒精)	-	○
財001502004	濟州工場建築關係	1940.06.01 ~ 1942.08.31.	○
財001502005	濟州酒精工場機械設備關係	1940.03.01 ~ 1940.07.31	×
財001502006	濟州酒精工場機械設備關係	1942.05.01. ~ 1942.12.31.	×
財001502008	濟州工場原料切干甘藷確保に関する件	-	○
財001502009	濟州工場機械器具關係		×
財001502010	濟州酒精工場機械設備關係	1942.06.01. ~ 1043.6.30.	×
財001502011	濟州酒精工場(3冊)	-	○
財001502012	濟州酒精工場(4冊)	-	○
財001502013	濟州工場設備關係	-	×
財001502014	濟州酒精工場關係(2冊)	1943.01.01. ~ 1943.12.31.	
財001502015	濟州酒精工場新築其他工事金額中間払綴	-	×
財001502016	濟州工場機器輸送關係	-	○

청구번호	문서 이름	기간	수집
財001502017	濟州酒精工場(5冊)	1943.06.01. ~ 1943.07.31.	○
財001502018	濟州工場建築關係	-	○
財001502019	濟州工場製品納入契約關係綴	-	○
財001502020	濟州酒精工場關係(一括)	1944.01.01. ~ 1944.12.31.	×
財001502021	濟州酒精工場關係(一括)	1944.01.01. ~ 1945.12.31.	○
財001502022	濟州工場副原料關係綴	-	○
財001502023	濟州工場原料關係綴	1944.09.01. ~ 1944.09.30.	○
財001502024	濟州酒精工場關係	1941.09.01. ~ 1943.03.31.	○
財001502027	濟州工場支払關係綴	1944.01.01. ~ 1945.04.30.	×
財001502028	雜品購入關係濟州工場掛	-	×
財001502029	受領書控濟州工場掛	-	×
財001502030	濟州酒精工場(7冊)	1941.10.01. ~ 1944.02.29.	×
財001502033	東拓濟州工場生産報告綴	1944.03.01. ~ 1945.03.31.	○
財001502034	東拓濟州工場燃料油脂類生産報告書綴	1944.07.01. ~ 1945.06.30.	○
財001502036	濟州酒精工場關係	1945.01.01. ~ 1945.12.31.	×
財001502037	濟州工場對陸燃資材關係	-	×
財001502038	濟州酒精工場關係	1944.01.01. ~ 1945.12.31.	×
財001502039	濟州酒精工場關係(2冊)	1942.01.01. ~ 1945.12.31.	×
財001502040	濟州酒精工場關係(人事一括)	1941.01.01. ~ 1944.12.31.	×

그리고 일본 외무성(外務省) 외교사료관(外交史料館)에 『외무성 묘가타니 연수소 구장 기록(外務省茗荷谷研修所舊藏記録)』이라는 자료가 남아 있는데, 이 자료 중에도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다.

〈표 2-2〉의 두 자료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내부분서가 아니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일본 정부에 회사 설립 및 목적 변경에 따라 제출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했던 서류다. 두 자료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게 서류를 제출할 때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2〉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영 제주주정공장 자료

청구번호	문서 이름	作成年月日
B06050318100	東拓ノ濟州島無水酒精事業經營認可申請ノ件	1940.1.25.
B06050344100	東拓ノ濟州酒精事業ノ經營變更ニ關スル件	1943.7.17.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미국국립문서보관소(NARA)에서 확보한 한글판 “신한공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 감사보고서”와 영문판 Audit Report on Cheju Pure Alcohol Co.가 남아 있다. <표 2-3>이 그것이다. 두 보고서는 신한공사 한국인 직원과 담당 미군정 관리가 작성한 해방 직후 제주 주정공장의 1년 동안의 영업실적을 감사한 결과를 담은 것인데, 해방 직후의 주정공장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표 2-3〉 주정공장 회계감사보고서

등록번호	번호	자료 종류	자료내용	생산 연월일	발행처	수급
912702A	001	보고서	Audit Report on Cheju Pure Alcohol Co. (1945.8.8.-1946. 8.31.)	1946. 12.22.	Cheju Pure Alcohol Co.	
912702A	002	보고서	신한공사 직영 제주 주정 공장 감사보고서	1947.4.	제주주정공장	상무부 감사국장

출전 : RG331, SCAP, Office of Comptroller, Audit Division, Correspondence File, 1945-52, Box 184, File 5: Audit of NKC

다음으로 2015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집하여 편집, 발간한 『수집사료해제집 9』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sup>9)</sup> 이 자료집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직원 명부」 1921년분, 1931년분, 1943년분과 함께 해방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미군정 산하기관이 되면서 지휘 기관이었던 신한공사(新韓公社) 시기의 미군정 담당관과 당시 신한공사 담당 관리들이 남긴 편지와 각종 서류가 담겨 있다. 이 자료들 중에서 특히 1943년도에 발간된 「직원 명부」를 보면, 〈濟州島酒精工場 建設事務所〉 직원의 직책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9)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5, 『수집사료해제집 9 : 東洋拓殖株式會社 職員名簿·新韓公社 내부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 III. 제주도 주정공장 건설의 배경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제주도에 주정공장을 세우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제국 일본의 에너지정책, 특히 석유 자원의 부족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조선 총독부가 추진하던 제주도 개발계획이었다. 두 요인이 겹치고 서로 얹히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제주도에 주정공장을 세우게 되었다.

### 1. 제국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무수주정

일본이 근대 산업화를 추진하고 군비를 확장해가던 19세기 말은 석탄의 시대였다. 적어도 1910년대까지만 해도 공장의 기계는 물론 철도 기관차, 군함은 대부분 석탄을 동력으로 증기를 생산해 엔진을 움직였다. 그래서 주요 역과 항구마다 석탄과 물을 준비해 놓고 보급했다. 하지만 석유로 엔진을 돌리는 것이 훨씬 편리함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석탄을 때면서 움직이는 기차와 군함은 사라지고 석유를 동력으로 하는 군함으로 바뀌었다. 비행기도 192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1930년대에 들어서면 비행기의 시대가 열렸다. 비행기는 모두 석유를 원료로 사용했다.

1930년대로 오면서 일본경제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또 군대의 각종 병기를 작동시키는 것도 모두 에너지 공급을 기본으로 했다. 에너지원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석탄이었지만, 가장 편리하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석유였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에너지를 자급하는 것이지만, 모든 에너지를 자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히 석유는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로 지배하는 지역에서도 생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일본은 필요한 석유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했는데, 그 중의 60~70%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석유로 일본은 국내 산업을 움직이고,

중국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석유의 미국 의존이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미국이 언제 석유 수출을 금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수입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석유 수입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타 공장 설비를 움직이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만주국을 수립하자,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일본 견제가 심해졌다. 미국은 일본이 꼭두각시 정권을 내세워 만주국을 수립했다고 비판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런 비판이 국제연맹으로 확산되자, 아예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군비 확장에 열을 올렸다. 1937년 중일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미국과의 대립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는 석유 통제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었다.<sup>10)</sup>

이 시기가 되면 육군과 해군은 물론 일본 정부까지도 석유 확보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의 하나가 석유 대체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석탄에서 빼내는 인조석유(人造石油)이고, 또 하나가 무수주정(無水酒精), 즉 순도 99%의 알코올이었다. 만약에 인조석유와 알코올을 석유의 대체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는 석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이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이미 유럽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상당한 수준까지 상용화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독일의 인조석유 생산량은 1934년 40만 톤에서 3년 후인 1937년에는 연 123만 톤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일본은 독일의 액체연료 자급정책을 참고로 인조석유정책을 수립했다. 특히 해군이 적극적이었다. 석탄을 가스화해 촉매에 의해 석유를 합성하는 석유 합성법은 1936년에 미츠이 물산이 독일에서 도입했다. 독일의 설계, 독일인 기술자의 직접 기술 지도였지만 국산로에 결함과 고장이 빈발했다. 기기 제조의 공작력과 철강 품질의 낮은 것이 그 원인이었다. 한편 만주 철도 주식회사는 석탄 직접 액화법(수소 첨가)을 도입했고, 1927년부터 암모니아 비료를 제조해본 경험이 있는 조선질소비료(후에 조선인조석유)는 1936년에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탄전(阿吾地炭田)에 석탄액화공장을 설립했다. 이 탄전에 매장된 석탄은 갈탄(褐炭)으로 매장량이 약 1억 5,000만 t에 달한다. 탄질은 휘발분 41%, 고정탄소(固定炭素) 31%, 발열량 6,225㎉로 인조석유의 원료로 아주 적당하다고 판단해 기대를 가졌다. 물론 독일에서 직접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해군과 기업들은 독자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국 전쟁 중이던 1943년이 되어서야 해군은 석탄 직접 액화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직접 액화법 개발은 중지됐고, 만철과 조선인조석유는 조업 목적을 남방석유에 수소첨가, 메타놀 제조로 전환했다. 인조 석유 생산 계획이 실패한 것이다.<sup>11)</sup>

10) 岩間敏, 2018, 『アジア・太平洋戦争と石油』, 吉川弘文館, 1쪽, 47쪽.

11) 岩間敏, 2015, 「開戦決定と人造石油—何故、日本に人造石油工業は成立しなかったのか—」, 一橋大學大學院 博



인조석유와 함께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무수주정(無水酒精, absolute alcohol)이었다. 이것은 물을 함유하지 않은 에탄올(에틸알코올)을 말한다. 알코올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마시는 술을 연상하지만, 그것은 에탄올에 물을 적당히 섞을 때이고, 물이 거의 섞이지 않은 상태, 즉 보통 99% 이상의 에탄올은 공업용으로 다양하게 쓰이며, 가솔린 대신 연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석유 대신 알코올만 쓰기는 어려웠다. 효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연구해본 결과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이 석유 80%, 알코올 20%를 섞을 때였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섞어 사용하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았다. 석유를 연료로 설계했던 각종 엔진에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고장이 잘 나기도 했다. 하지만 석유 위기를 타개할 가장 그럴듯한 방안이 무수주정이었으므로, 1938년부터는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석유에 알코올을 섞어 사용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그것을 강제혼화(強制混和)라고 불렀다.

가장 먼저 가솔린에 무수주정을 섞어 사용한 것은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이미 1920년대 초부터 가솔린에 무수주정을 섞는 정책을 시작했는데, 그 뒤 점차 유럽 각국이 이를 따라 하기 시작했고, 1930년대 와서는 약 20여개 국가가 혼용 정책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1930년대 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결국 가솔린에 무수 알코올을 혼용해 쓴다고 결정하였다.<sup>12)</sup>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첫째에는 석유에 무수알코올을 5%만 섞는 기로 하고, 해마다 비율을 높여서 20%까지 올리기로 하였다.

1935년경부터 무수주정을 대체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는데, 일본 제국 영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추이를 따라서 계산했을 때, 20%를 섞기로 한다면, 약 200만 석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선 일본 국내의 생산량을 계산해 보니, 이미 생산하고 있는 무수주정과 새로 공장을 확충해서 만드는 무수주정을 합치면 100만석 정도였다. 여기에 사탕수수를 원료로 대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60만석 정도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적어도 무수주정을 30만석은 생산해야 석유와 섞어 쓰는 강제혼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다고 추산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방침에 따라서 조선총독부에 알코올 공장을 새로 짓고 생산에 착수하도록 명령했다. 조선총독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었는데, 일본정부가 계속해서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가 가장 먼저 손을 잡은 것은 동양척식주식회사였다. 총독부 관계자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의뢰해서 무수주정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직영이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하여 맡기는 방식을 선택했다.<sup>13)</sup> 공장은 신의주(新義州)에 짓기로 했다. 이유는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톱밥(거설, 鋸屑)을 원료로 무수알코올을 제조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었다. 이 방법은 ---라고 하는데, 독일에

士學位論文.

12) 『동아일보』 1938년 5월 8일.

13) “東拓の無水酒精, 朝鮮は別會社 設立”, 『朝鮮新聞』 1936년 10월 13일.

서 개발된 기술이었다.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북조선 지방에서는 한창 벌채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료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無水酒精 工業 開發促進計劃 總督府서 至急立案

無水酒精 生産에 關해서는 이미 明年度 一般 豫算에서 相當한 經費를 計上하였는데 總督府 豫算에는 아직 이 計上을 하지 안헛든 바, 國策豫算이라고 逆으로 大藏省에서 이 財源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선의 無水酒精 事業의 계획 수립을 요구해왔으므로, 總督府에서는 來 10일까지 財務, 殖産, 農林, 專賣 各局과 軍部 各 關係官의 협의회를 開하고, 조급히 總督府의 無水酒精 조성계획을 立案하여 소요 경비의 요구를 하기로 되었다.

그런데 총독부의 原案은 大體 新義州의 木材屑에서 생산되는 無水酒精을 東拓事業으로 착수케 하고 이에 상당한 보조금을 與할 방침인데, 同 협의회에서는 생산 酒精의 처리방법, 專賣制의 시행, 法令運用의 사무분담 등에 관해서도 협의할 터인데, 정부측에서 적극적으로 동 사업 개발의 촉진을 한 것은 明年度 總督府 예산 중에도 一段의 특색을 示한 것이다.<sup>14)</sup>

일제의 조선 침략 초기에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일본의 국가자본과 한국 왕실 토지를 바탕으로 한 지주경영이 주 사업이었지만, 일본 농민 이주사업도 또 하나의 축이었다. ‘척식이민(拓地殖民)’이라는 구호 아래 매년 1인당 1정보씩 1만 명을 이주시켜 10년간 24만 정보에 24만 명을 한국에 이식시킬 계획을 세웠다. 1910년 ‘이주규칙’을 제정하고, 1911년 제1회 이민을 시작으로 1927년까지 17차례의 이민을 실시했다. 이것은 일본인 소농민을 한국에 대량 이주시켜 자작농으로 육성하는 일이었다.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의 목표인 ‘한국의 일본화’를 겨냥한 동화정책과 ‘한국 개발’을 동시에 수행할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한국 땅을 완전한 일본 영토로, 한국인을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들어 한국을 일본 제국주의의 일원으로 구조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sup>15)</sup>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의 첨병으로 불리었던 동척은 식민정책의 변화에 연동하여 그 모습을 바꾸어왔다. 설립 초기의 이민정책 담당자에서 1910~20년대 朝鮮 최대의 지주경

14) 『조선일보』 1936년 12월 4일.

15) 최원규, 2000, 「東洋拓殖株式會社の 이민사업과 동척이민 반대운동」, 『韓國民族文化』 제16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 8, 79쪽.

영자, 그리고 전시 체제기에는 국책금융기관으로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수산업과 국책사업에 대한 주요한 자금공급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sup>16)</sup>

1930년대 후반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던 무수주정 생산이라는 과제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급박하게 추진하는 과제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과제를 맡아달라고 동양척식주식회사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동척은 기꺼이 이 과제를 떠맡아 새로운 회사를 창설하기까지 한 것이다.<sup>17)</sup>

## 2. 조선총독부의 제주도 개발정책과 무수주정공장

『제주일보』는 2004년 10월 1일 “일제의 제주도 개발 계획사 … 본지 독점 입수 최초 공개”라는 제목을 달고 창간특집 기사를 실었다. 오재용 기자가 ‘제주도개발계획’에 대한 그 배경과 의미, 내용을 6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로 보도했다. 신문사에서 공개한 이 자료는 1937년에 조선총독부 토목과에서 작성한 「국고보조 제주도개발에 있어서 토목사업계획」이라는 공문이다.<sup>18)</sup> 물론 이 자료는 해방 후 조선총독부 각 부서에 남아 있던 문서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계받은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이 자료를 정리해서 최근에 일반 공개하면서 알려진 것이다.

내용을 보면, 제주도개발 토목사업 계획의 기본 방침을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도로공사계획, 지하수조사계획, 수력발전계획의 중요 사항과 필요한 예산 내역이 담겨 있다. 이것은 일제침략기 조선총독부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수립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종합 개발계획이었다. 그 내용을 진관훈과 현미애가 개략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현미애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sup>19)</sup>

전라남도도는 1936년부터 제주도의 농·수·축산 분야의 개발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총독부에 기초조사를 요청하였다. 1937년 2월 총독부는 농산, 임업, 목축, 수리, 수산 각 부 과장 및 분야 기술자로 구성된 ‘제주도 산업조사단’을 제주로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 산업조사단’은 실지 조사를 마치고 2월 16일 전라남도청에서 ‘제주도 개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총독부의 수산과장, 농무과장, 축탁위원들과 전라남

16) 배석만, 2014, 「전시체제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동원 구조와 투자동향 분석」, 『지역과 역사』 No.34, 부경역사연구소, 279쪽.

17) 신의주의 「朝鮮無水酒精會社」는 1937년 6월 19일 동경 동척 본사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회사는 자본금 5백만 원, 목재 톱밥을 원료로 연산 1만4천석(石)을 제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조선일보』 1937년 6월 21일.

18) 이 자료는 全羅南道 知事가 朝鮮總督府에 1937년 5월 28일자로 보낸 「地方土木費 國庫補助 稟申ニ關スル件」이라는 공문철인데,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관리번호는 CJA0015330.

19) 현미애, 2020, 「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향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IV장 1절 ‘제주도 개발계획안’의 수립과 無水酒精공장.

도 도지사, 각 부장 및 과장, 관계 기술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면양 증식, 양돈 및 축우를 중심으로 한 목축 개발, 고구마 증산과 맥주 보리 증산을 중심으로 한 田作, 원양어업 근거지로의 수산개발, 용천수 개발을 통한 음용수와 동력 개발, 사방공사 방풍림 조성, 교통 및 운수 시설 개발 등 대규모의 개발계획이 논의되었다.

그 뒤 전라남도청은 제주도 개발 계획을 작성했다. 도청은 작성한 개발 계획을 1937년 6월 12일에 도지사 및 각 부서 과장들과 濟州島司가 참석한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전라남도 도지사는 계획을 6월 19일 총독부에 직접 제출하였고, 전체 개발 사업을 담당할 제주도 개발회사를 창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라남도의 건의를 받은 조선총독부는 이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1일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무총감, 식산국장, 재무국장, 체신국장, 문서·회계·농무·농진·임정·수산·상공 각 과장급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전라남도가 제출한 원안을 놓고 협의하였고, 7월에 제주도 개발에 대한 총독부의 방침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제주도 개발계획안’을 보면, ‘제주도 개발회사’라는 특수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가 무수정제 제조, 면양목장 경영, 젖소 목장 경영, 수산업 및 부속 사업의 경영, 이민사업, 전기사업 등을 직영하도록 했다. 총독부와 전라남도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기초 시설 및 보조 사업에 투자하고, 방풍 방사림과 도로 개량, 항만수축, 상수도 부설, 지하수 조사 등의 토목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총독부 11,315,016원, 전라남도 8,707,067원, 개발회사 7,500,000원으로 약 10년간 총 경비 27,522,083원이다.

〈표 3-1〉 제주도 개발회사 자금 소요액<sup>20)</sup>

종별	금액(圓)	종별	금액(圓)
면양구입비	92,000	운반선 건조비	300,000
면양목장 용지매수비	160,650	어묵제조 설비비	22,300
면양목장 건설비	31,115	제빙 설비비	208,000
젖소 구입비	16,384	제재 설비비	9,600
우유생산장비	48,273	통조림제조 및 돼지가공설비비	300,000
제유공장 설치비	9,508	수력발전 장치비	200,000
공동처리장 설치비	1,810	사무소 숙사 건축비	510,000
주정공장 설치비	1,317,620	사무소 설비비	50,000
휴한지 매수비	2,000,000	창립비	10,000
어선건조비	1,395,000	운전자금	526,500
어구구입비	45,000		
중유탱크설비비	90,000	계	7,500,000

20) 全羅南道, 濟州島開發計劃概要, 1937.6.(문서번호: CJA0003244), 현미애, 2020, 「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향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57쪽에서 재인용.

〈표 1〉에서 보듯이, 제주도개발회사의 예상 자금소요액 7,500,000원은 주정공장 설치비 1,317,620원과 주정의 원료인 고구마 생산을 위한 휴한지 매수비 2,000,000원을 합치면 44%로 절반 가까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수산업 분야에 2,069,000원, 축산업 목장 359,740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중에서 중심은 제주도 목장에서 면양을 기른다는 조선총독부의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평소 전라남도가 제주도를 개발하려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자해야 할 것 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개발 계획을 주도할 신설 회사가 담당하는 사업 분야는 제주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라남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조선총독부가 현안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먼저 주정공장 설치하는 조선총독부가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무수주정공장을 제주도에 새로 건설하기로 예정했음을 나타낸다. 전라남도가 초안을 작성하고, 총독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같지만, 전체의 큰 그림은 총독부가 먼저 제시했고, 전라남도는 그 것을 반영한 계획을 짜서 총독부에 올렸을 뿐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결국 1937년도 제주도 개발계획은 제주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본 제국이,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세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자원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 3. 조선기계소주연맹

조선총독부는 제주도에 주정공장 건설을 예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930년대 중반부인 것은 분명하다. 이미 동척과 의논해서 신제주에 톱밥을 원료로 하는 주정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동척은 이 공장을 1년에 2~3만석의 무수주정을 생산할 계획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sup>21)</sup> 하지만 조선총독부로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조선총독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20만석 이상을 생산하려면 더 많은 공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총독부는 톱밥이 아닌 다른 원료, 즉 고구마를 비롯한 곡물에서 알코올을 추출하는 공장에서 나머지 무수주정을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짠 계획의 하나가 제주도 개발계획이었고, 그것을 담당할 제주도 개발회사를 구상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소주생산업체들은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무수주정 생산 계획을

21) 신제주 무수주정공장의 생산능력을 얼마로 잡느냐 하는 것은 신문기사마다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데, 최저 5만석을 제조할 것으로 보는 기사도 있다. 『조선일보』 1937년 5월 16일.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무수주정 생산은 사업 확장 기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연합체를 통해서 정식으로 조선총독부에 건의했다.

### 酒精工業의 助成을 要望 燒酎聯盟에서 陳情

燃料國策으로 朝鮮에서도 깨슬린 節約을 爲하여 日本内地와 同様 無水알콜의 混用計畫을 進行하고 一面 알콜工業의 助長 育成을 考慮하고 있는데, 이에 對하여 朝鮮 新式 燒酒聯盟에서는 24일 각 代表者가 總督府를 방문하여 同 제조에 대하여 如左히 陳情하였다.

현재의 機械燒酒 製造業者는 大平, 大鮮, 増水, 朝日, 七星, 昭和의 6社에서 알콜 함유 96%의 것 年産 14만석의 능력을 갖고 있어 알콜 혼용의 경우는 이 朝鮮 産 능력을 활용하여 주기 바란다.

總督府에서도 이를 양해하였는데, 알콜 제조에는 이 燒酒業 轉換 外, 米, 雜穀 등 朝鮮은 공업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다.<sup>22)</sup>

당시 조선의 소주 사업자들은 조선기계소주연맹(朝鮮機械燒酒聯盟)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 조선인 사업자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본에서 건너온 사업자들이었다. 이 시기 조선 전국 각지에는 수천 개의 양조장이 있었고, 그 대부분은 조선인 사업자들이 경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주조업(酒造業) 정리 방침에 따라서, 영세한 소규모 주조업자들은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sup>23)</sup> 대신에 일본에서 건너온 새로운 증류 방식에 의한 소주 제조 기술인 ‘기계소주’ 업자들이 술 시장을 장악해 갔다. 그들은 전에는 고구마로 소주를 만들어왔지만, 그 당시에는 대만으로부터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당밀을 수입해서 이를 이용해서 소주를 만들어 팔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도 고구마를 이용한 알코올 제조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sup>24)</sup> 물론 연료로 사용할 알코올은 일반 소주와는 달랐다. 일반 소주와는 달리 일단 증류를 시켜서 얻는 95도 알코올을 다시 한 번 증류시켜 99%가 넘는 무수 알콜을 생산하려면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고 작업장도 넓혀야 했다. 그렇지만 무수주정생산은 모처럼 찾아온 사업 확장 기회였다.

조선총독부도 소주업자들의 주정생산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활용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각도에 13개의 공장을

22) 『조선일보』, 1936년 7월 28.

23) “大資本下에 犧牲된 十萬餘 酒造業者, 小規模에는 絶對 不許可 方針 11년 이래 십만 이천 명이 주렸다. 【우리 손을 떠나는 朝鮮酒釀造權】” 『조선일보』 1927년 9월 23일.

24) 管間誠之助, 1975, 「本格燒酒製造業100年の軌跡」, 『日本釀造協會雜誌』 70卷11号, 日本釀造協會. 767쪽.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sup>25)</sup> 그랬기 때문에 무수주정공장이 경남 마산에 세워진다, 인천, 또는 여수에 세워진다 하는 기사가 계속 신문에 실리고 있었다.<sup>26)</sup>

1938년이 되자 조선총독부 액체연료위원회(液體燃料委員會)는 무수주정 공장을 가장 먼저 제주도에 세우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이유는 원료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 제주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설립과 운영을 제주개발회사가 아닌 소주업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자금은 총독부가 조선기계소주연맹(朝鮮機械燒酒聯盟)과 공동출자하여 경영할 방침이라고 했다.<sup>27)</sup> 아마도 그들이 이미 주정을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21일 『매일신문』에는 “공장설치 장소로서는 종래 확정시 되었던 제주도가 제반 결점이 있으므로 부산이 신후보지로서 상당히 유력시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났다. 그 뒤로도 부산, 여수(麗水), 목포(木浦), 군산(群山)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기사로 기계소주연맹의 간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sup>28)</sup>

소주업자들은 조선총독부의 제안을 그대로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계소주연맹에 소속된 회사들이 조선총독부가 주겠다는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이 가능한지, 수익은 얼마나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특히 제주도가 교통이 불편해서 공장 건설도 문제이지만,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운반해서 갖고 나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주연맹의 각 조합 대표들이 직접 제주도를 시찰 했다.<sup>29)</sup> 그러나 시찰 후에도 소주연맹에서는 주정공장이 보조금을 받아도 수익이 별로 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는 제주도가 아닌 목포나 부산으로 옮겨 공장을 설치할 것을 정식 제안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이미 이 사업을 제주도에 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제주도 개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개발계획을 추진할 독립 회사를 설립해서 맡기겠다는 구상도 해놓은 상태였다. 그것을 넘기겠다는데 반대하니가 소주연맹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업자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 4. 동양척식주식회사에게 몰아주기

조선총독부는 기계소주연맹을 포기하고 일본의 주정사업자를 수소문했다. 그러나 그것

25) 『조선일보』 1937년 4월 14일.

26) 『釜山日報』 1937년 03월 21일 ; 『조선일보』 1937년 4월 14일 ; 『동아일보』 1937년 12월 9일.

27) 『每日申報』 1938년 01월 13일.

28) 『每日申報』 1938년 01월 23일 ; 『조선일보』 1938년 1월 23일.

29) 『동아일보』 1938년 2월 18일 ; 『每日申報』 1938년 03월 02일.

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부는 이미 목재로 무수주정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게 고구마로 무수주정을 생산하는 회사도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 사업을 동척에 정식으로 부탁하였다. 그런데 동척은 이미 신의주 주정공장 건설을 시작한 상태였는데, 아직 공장도 다 짓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다.

일단 동척 총재가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이 때 사업과의 실무팀이 먼저 도착하여 주정공장 신설을 위한 제주도의 사정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다. 동척 사업장에서 볼 때 제주도가 원료가 가장 풍부한 지역이라는 점은 동의했다. 최대의 고구마 산지. 그러나 문제는 교통이었다. 거대한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 각종 자재를 싣고 와서 공사를 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제주항이 작고 불편해서 큰 배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래서는 알콜을 생산하더라도 수송할 배가 정박하고 선적하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동척에서는 기계소주연맹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고 목포로 옮기면 가능하다고 총독부에 제안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보면, 기계소주연맹과 다를 바 없었다.

동척 총재가 1938년 5월 말에 제주도를 직접 돌아보고 난 다음, 함께 왔던 회사 간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는 고구마 최대 산지라는 장점이 있다. 고구마 수매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원료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제주항이 좁고 불편하여 공장을 건설하기도 어렵고, 건설한다 하더라도 육지 다른 지방으로의 제품 수송도 불편하다. 현재 200톤 급의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인데, 1천 톤 급 이상의 배가 드나들 수 없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목포에 공장을 건설해서 제주도의 원료를 목포로 실어 나르고, 목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다.<sup>30)</sup>

6월 한 달은 동척과 총독부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된 시기였다. 총독부는 적자를 메꾸 줄 만큼 일정한 수준의 국가보조도 나올 것이라고 설득했다. 더 나아가 제주항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교통 불편을 없애주겠으며, 총독부가 직접 항구 바로 근처에 공장 부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제시된 다음, 동양척식주식회사 총재가 총독부의 정무청감과 협의를 한 결과 동척이 이 사업을 맡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이를 위해서 총독부가 적자 보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주항을 빠른 속도로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동척에서 이 사업을 맡더라도 별 이익이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그러나 국책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로서는 이것 역시 수익이 우선이 아니고 국가정책 사업으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종류의 사업이었다.

30) “濟州島 無水酒精事業에 대한 當社の 希望條項”, 『濟州島酒精事業1 1938년 9월 이전』, 일본공문서관 문서번호 財001501988,



## IV. 동양척식회사의 주정공장 건설 과정

### 1. 조선총독부의 제주항 확장과 공장부지

제주도의 무수주정 사업을 동양척식회사가 맡기로 결정되자, 조선총독부가 바빠졌다. 조선총독부는 제주항 확장 공사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제주항과 이어져 있는 토지를 정리해서 공장 부지로 제공해야 했다. 그리고 두 작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일이었다.

제주항 확장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다. 전라남도가 작성한 서류를 보면, 전라남도는 이미 제주항 수축 공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고, 1939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표에서 보듯이 전라남도 항구 수축공사 중에서 우선순위 3번째였다. 그런데 그 계획은 갑자기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래서 1순위 나로도항과 2순위 추자도항을 뒤로 미루고 갑자기 1순위가 된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한림항이 2순위로 들어오는 것이다. 한림항은 제주항에 주정공장을 완공한 다음 순위로 또 다른 주정공장을 세우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확장 공사 내용도 바뀐다.

〈표 4-1〉 1939년도 이후 국고보조 항만공사 계획서<sup>31)</sup>

全羅南道 總工事費 一金 339만3천원

1순위	羅老島港	150,000원	⇒	3순위
2순위	楸子島港	120,000원	⇒	4순위
3순위	濟州港	900,000원	⇒	1순위
	翰林港	50,000원	⇒	2순위
4순위	蝸島港	140,000원		

31) 전라남도, 1939, 「각항수축공사(국고보조)(각도)」 안의 제주항수축공사계획서(도면첨부).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15614).

5순위	巨濟島港	220,000원
6순위	靑山島港	250,000원
7순위	桂馬港	25,000원
8순위	台耳島港	150,000원
9순위	安島港	250,000원
10순위	栗浦港	20,000원
11순위	鞍馬島港	220,000원
12순위	莞島港	365,000원
13순위	城山浦港	265,000원
14순위	西歸浦港	200,000원
15순위	棼瑟浦港	110,000원

현미애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당초 계획안들은 기존 서방파제측 매립대지와 연결하여 신규 매립지를 조성하고, 1천 톤 급 이상의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안벽을 축조하고 해저를 준설하는 등 기본적으로 서방파제측으로 매립지를 확장할 예정이었다. 즉 승객과 화물의 이동이 서방파제측 매립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계획하였다. 해운의 종착점이 육운의 시작점이므로 기존에 제주도 내에서 물류 이동의 중심이 되는 제주성내로의 접근이 수월한 서방파제 매립지 쪽으로 부두를 확장하여 육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제주성내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그런데 1938년 7월 동척에서 제주에 무수주정공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제주항 바로 옆에 공장부지를 조성할 것으로 정해지면서 제주항 확장계획안은 크게 바뀌었다. 말하자면 서방파제측으로 매립을 확장하지 않고, 대신에 동방파제와 동방파제쪽을 중심으로 매립지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동방파제측 매립부를 중심으로 항만시설을 정비하면, 선박이 접안하여 내려놓은 화물은 산지교를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이를 해소하여 물자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신규 매립지에 직통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

총독부는 육운 이동의 번거로움에도 산지천 동방파제 매립지 구역의 추가 확장을 계획하였다. 이는 당초 총독부가 제주도 개발계획의 수립 목적을 ‘도 산업을 부흥시켜 도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발상이었다. 본 계획안을 통해 총독부의 제주 개발과 제주항 확충이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님이 확실해졌다. 제주항 확장공사는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시스템 확충을 위한 축항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수주정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항만 개조였기 때문에 공장 부지와 연결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 것이었다.<sup>32)</sup>

32) 현미애, 2020, 「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항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68-69쪽.

## 2. 전라남도의 매축과 정지작업

이렇게 제주항 확장 계획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활동을 고려하여 재편성하고 빠른 속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한 다른 한편으로, '제주항 매축공사(濟州港 埋築工事)'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 공사는 부두시설 확충을 위한 해안매축과 무수주정공장 부지 조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제주항 바로 앞에는 1기, 2기 축항공사를 할 때, 제주면이 구입해서 토석 채취장으로 이용하던 토지가 있었다. 총독부와 제주도는 당시는 사용하지 않고 있던 토석 채취장을 정리해서 공장 부지로 동척에 제공하게 되었다.<sup>33)</sup>

### 濟州港 埋築工事費 起債의 件<sup>34)</sup>

理由: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무수 알콜 공장을 제주항에 설치하기로 결정.

道에서 올해 국고보조(70%) 사업으로 제주항 수축공사(공사비 550,000엔)를 시작하여, 항만 설비의 개선을 추진함. 항만수축공사와 병행해서 公有水面 埋築工事を 실시하여, 用地 不足의 결함을 보완하려 함. 所要 공사비는 280,000엔을 기채하려고 신청함.

#### 1) 매축계획 수립의 직접 동기

동척이 무수알코올 공장을 제주항 인접지에 설치할 계획이고, 용지 구입추선을 도에 의뢰하여, 부지를 도에서 조성하여 제공하기로 했으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생겨남. (도 지방과장 설명)

#### 2) 사업계획의 개요

제주항 항내 동측에 총면적 18,550평방m 매립을 위하여 전면 263m의 갑종 호안과 북측에 100m의 물양장을 조성하고, 매립 토지 주위에 도로를 만들어 해륙의 연락에 편리하게 하고, 산지측 우안 도로를 폭원10m로 확장하는 동시에 산지교를 폭원 6.4m로 하여 읍내와의 연락을 도모하는 한편, 수축공사 토취장 적지를 정리하여 유효지 35,520평방m를 얻고, 또 본 토지와 제주도 일주도로 사이의 연락도로 400m(폭원 6m)를 개설한다.

33) 현미애, 윗글, 70쪽 각주 220).

34) 전라남도, 1939, 「제주항매축공사비기채의건(전남)」,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3476.

따라서 이 계획은 순전히 동척이 필요로 하는 향만 시설과 부지의 조성 작업을 전라남도도 도맡아 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라남도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다가 공사를 하고, 공사를 마친 다음에는 정리를 마친 토지를 동척에 매각해서 그 돈으로 빌린 돈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담당자의 추가 설명에 의하면, “본 토지를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고 1940년 이후 3년 동안에 분할(해서 내게 할) 계획”이라고 했고, “동척의 무수 알콜 제조사업은 국책에 순응하는 사업이므로, 제주도 개발 시설의 일단으로 무수알콜 제조공장 유치를 위해서 해당 용지를 약간 싼 가격에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래 매입가격에 토지 정리비용을 더해서 제 가격을 받고 제공하지 않았다.<sup>35)</sup>

### 3. 동척의 공장 건설 계획과 사업 승인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39년 8월 8일 일본 정부에 무수주정사업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한다. 그리고 정식 인가가 난 것은 1940년 1월 25일이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서류가 <표 4-2>다.

<표 4-2>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제주도무수주정사업 인가신청

東拓ノ濟州島無水酒精事業經營 認可申請ノ件

- 一. 공장설치 장소 - 전라남도 제주도 제주읍
- 二. 소요자금 3,000,000원
- 六. 공장설비 : 본 공장은 제주도산 절간고구마를 원료로 함수주정(含水酒精)을 제조한 다음, 탈수시켜 1년에 20,000石의 무수주정을 생산할 예정.
- 七. 用地 : 공장 설치 최적지는 제주도 축항계획에 포함시켜, 임항지로 하고, 정지(整地) 일체를 도당국에 위임하는 것이 유리하고 정지 완료 후에 토지를 받는다. 다만 舍宅用地는 직접 교섭함.
- 九. 공사 진행 예정 - 착수 1939년 10월, 준공 1940년 12월
- 十. 조업개시에정 - 시운전 1941년 1월, 조업개시 1941년 3월

35) 전라남도, 1939, 「제주항매축공사비기채의건(전남)」,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3476.

1939년 4월 작성한 서류에 의하면 전라남도가 담당하고 있는 공장부지 정리(整地) 작업은 1940년 4월이면 대부분 끝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장 건설사무소는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공장 설계를 맡기고, 공사계약을 했다. 그리고 8월까지 언덕 위 토지의 정리작업을 마칠 예정이므로, 9월부터 언덕 위에 창고와 숙소를 건설하고, 1940년 4월부터는 언덕 아래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1940년 9월부터는 각종 기계 설비를 들여와 배치하고 1941년 1,2월에 시운전을 한 다음, 3월에 정식 조업을 개시한다고 예정했다.

〈표 4-3〉 제주 주정공장 건설 예정표

		濟州酒精工場建設豫定表												昭和14年4月見込											
年 別		14												15											
月 別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揚水試験		■																							
設 計		■	■	■	■	■																			
工事契約			■	■	■	■	■																		
工場建築								■	■	■	■	■	■	■	■	■	■	■	■	■	■	■			
工場設備																	■	■	■	■	■	■			
試運転																							■	■	
整 地			■	■	■	■	■	■	■	■	■	■	■	■	■										
			倉庫					工場																	
			本社												現地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희망 사항이었다. 1941년이 되어서도 부지 정리 작업이 미완성 상태였고, 창고, 숙소,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한 각종 자재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 예정 시간은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었다.

〈표 4-4〉는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1941년 10월 31일 작성한 제주주정공장의 건설 공정을 보여준다. 먼저 건축 부문은 사택 90%, 원료 창고 75%, 공장(목조건물 45%, 벽돌건물 80%, 철근건물 15%), 기관실, 전기실 65%, 수리 공장 90%, 휴게실 90%, 제품창고 95%, 사무소 90%, 물품 적치장 95%, 수위실 30%로 2/3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특히 공장 건물 중에서 철근으로 지을 예정인 건물은 거의 중단 상태였다.

한편 기계 설비 부문을 보면 분쇄장치 0%, 증자기(蒸煮機) 0%, 발효조(醱酵槽) 0%, 증류장치 0%, 사정조(査定槽) 10%, 주정저조(酒精貯槽) 10%, 전기설비 20%, 수리 공



해서 별도의 시설을 갖추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무수주정을 생산하기 위한 발효 과정에서 사용하는 효모를 바꾸고, 일부 시설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주정공장은 1943년도부터 부탄올 제조공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공사 건설 자재는 전적으로 육군 연료창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필요한 자재도 입수가 확실히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시에는 군대의 영향력이 다른 행정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1943년 6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정부에 무수주정 제조 사업을 부탄올 제조 사업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았다.

〈표 4-5〉 무수주정사업을 부탄올사업으로 바꾼다는 경영변동 신청서<sup>37)</sup>

# 東拓の 濟州酒精事業 經營 變更ニ關スル件

(중간생략)

## 二. 新사업계획과 사업 자금

사업 전환에 따라 이미 갖춘 설비와 변경, 주모조(酒母槽) 등의 신설, 증설을 하여 1943년 9월에 모두 완성하여, 1943년 10월부터 제조 개시함. 이를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절간고구마를 주원료로 하는(부족할 때는 砂糖으로 보완) 발효법에 따라서 생산능력 부탄올 1,750톤, 아세톤 875톤, 알콜 290톤을 목표로 함.

부탄올 1,500톤

아세톤 750톤

에탄올 250톤                      합계 2,500톤

註 필요한 원료는 대체로 절간 감저 15,000톤(4,000,000관) 즉 生甘藷로는 그 3배인 45,000톤(120,000,000관)이다.

부탄올(부틴 알콜)은 1913년 감자(馬鈴薯)를 원료로 영국에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에탄올이 대체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뒤늦게 알려진 부탄올이 에탄올보다 더 안정적이고 우수한 대체연료로 평가받자, 항공기 연료로 부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육군항공대가 그랬다. 일본도 뒤늦게 부탄올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930년대 들어서면서 수입이 막혔다.

그런데 제주주정공장은 부탄올 생산 기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동양척식회사 계열사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동척은 조선에서 주정공장을 건설

37) 「東拓の 濟州酒精事業 經營 變更ニ關スル件」, 外務省外交史料館外務省茗荷谷研修所旧蔵記録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06050344100.

하기 전부터 주정사업을 해오고 있었다. 동척은 1920년대부터 하얼빈에 주정공장을 갖고 있었으며, 1932년에는 공장을 확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sup>38)</sup> 그리고 만주국에 있던 동양척식회사 자회사인 대동주정(大同酒精)<sup>39)</sup>이 무수주정을 생산하고 있었다. 게다가 관동군이 부탄올을 구하게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회사에 부탄올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다. 대동주정은 에틸알코올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부틸알코올을 만든 경험은 없었다. 그렇지만 회사 연구진은 에틸도 메틸도 부틸도 구조식이 약간 다를 뿐이다. 만들지 못할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유기합성공업, 석유화학공업의 일환으로 부탄올이 어렵지 않게 제조되고 있지만, 당시는 발효법(醱酵法)이 유일한 생산방법이고, 또한 일본에서는 협화발효(協和醱酵)라는 회사에서 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만철(滿鐵)의 연구소에서 부탄올 분류(分留)에 효과가 있는 발효균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관동군의 주선으로 군주를 분양받았다. 대동주정은 이것을 바탕으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해서 1942년 4월에 부탄올을 만주에서 처음으로 생산해냈다. 생산된 부탄올은 품질도 좋아 전량 군납(軍納)되고, 대동주정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sup>40)</sup>

나는 동척 계열사에서 이미 부탄올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주정공장에서 부탄올 생산이 가능했다고 본다. 육군이나 동척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먼 만주의 대동주정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부탄올을 생산하게 했다고 본다. 제주주정은 대동주정의 연구 성과를 가져와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다.

38) 『조선일보』 1932년 5월 1일.

39) 大同酒精會社は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만주국측 大釀造企業家 徐鵬志와 손을 잡고 1933년 자본금 167만 엔으로 설립한 회사다. 동척이 용자를 제공하여 설비 개선, 기술 개량을 하고, 액체연료의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순조롭게 발전하여, 자본금 8,000만 엔의 큰 회사로 발전했다. 大河内一雄, 1982, 『幻の国策会社 東洋拓殖』, 日本經濟新聞社, 184쪽.

40) 위 글, 187쪽.



## V. 주정공장의 조직과 운영

### 1. 직원 구성

이 시기 제주공장 건설은 제주주정공장 건설사무소(濟州酒精工場 建設事務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943년도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 명부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조선지사 사업과 명부에는 “제주주정공장 건설사무소”가 나오고 소속 직원은 22명이 었다.<sup>41)</sup>

〈표 5-1〉 제주주정공장 건설사무소 직원 명단

濟州酒精工場 建設事務所 (全羅南道 濟州島 健入里 1148)

所長	技師	鎌田政郎
次長	副參事	高橋勝藏
	技師	□山□□
	技師	稻荷眞吾
	副參事	古川義雄
	技手	佐藤研吾
	書記	吉田勇喜
	技手	山本義通
	書記	松尾青青
	書記	李貞馥
	書記	吉原卓郎
	技手	山田 健

41)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5, 『수집자료 해제집 9 : 東洋殖産株式會社 職員 名簿, 新韓公社 내부자료』, 국사편찬위원회.

技手	大山廣容
技手	芝山泰一
技手	佐藤 昌
技手補	小平省三
技手補	高橋末吉
技手補	張本武雄
技手補	良元丈夫
(召) 技手補	石丸光彦
書記補	昌原光彦
書記補	橋口秩子

부탄을 제조 공장으로 바꾼 동양척식회사 제주공장은 육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비로소 공장의 제 모습을 갖추었다. 하지만 <표 5-2>에서 본 것처럼 공장 시설을 1943년 9월에 모두 완성하여, 1943년 10월부터 제조를 개시한다는 계획은 좀 더 뒤로 밀려 1944년 2월이 되어서야 조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1944년 3월 25일 공장 마당에서 조업식을 가졌는데, 이 때 1939년부터 공장 건설 마무리까지 일했던 카마타(鎌田政郎) 건설사무소장이 임기를 마치고, 그 대신에 공장장으로 기사(技師) 미유시 키요오(三好潔雄)가 부임했다.

<표 5-2> 조업식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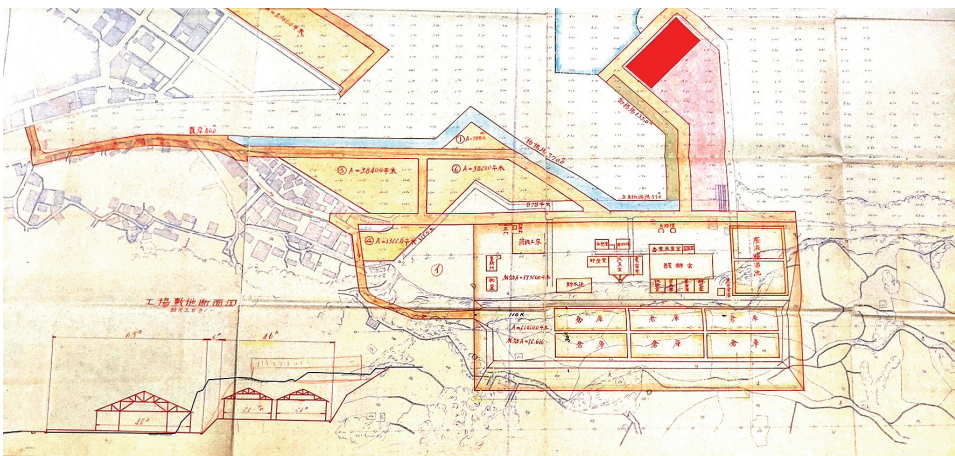
一. 일시	3월 25일 오후 4시반
二. 식회장(式會場)	조업식장은 공장 구내 광장
三, 식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사</li> <li>2. 국민의례</li> <li>3. 공장장 인사 및 경과보고</li> <li>4. 내빈 축사</li> <li>5. 공사인(工事人) 표창</li> <li>6. 우량 종업원 표창</li> <li>7. 폐회사</li> </ol>
四 . 기타	
1) 내빈 축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사(島司)부터, 읍민을 대표하여 읍장(邑長)으로부터 정중한 말씀이 있을 것.

- 2) 공사인(工事人) 표창은 식을 거행하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연말 시험운전부터 이번 일부 조업에 이르기까지, 직장에 구매되지 않고 헌신적으로 협력한 개인 4명에게 공장이 감사장과 주효료(酒肴料)(50원)를 증정함.
- 3) 우량 종업원은 직원 1명, 공원 11명을 표창함.
- 4) 주된 출석자는 다음과 같다.  
 도사, 읍장, 해군기지 지휘관, 육군경비대장,  
 판사, 검사, 도립의원장, 농업학교장

## 2. 공장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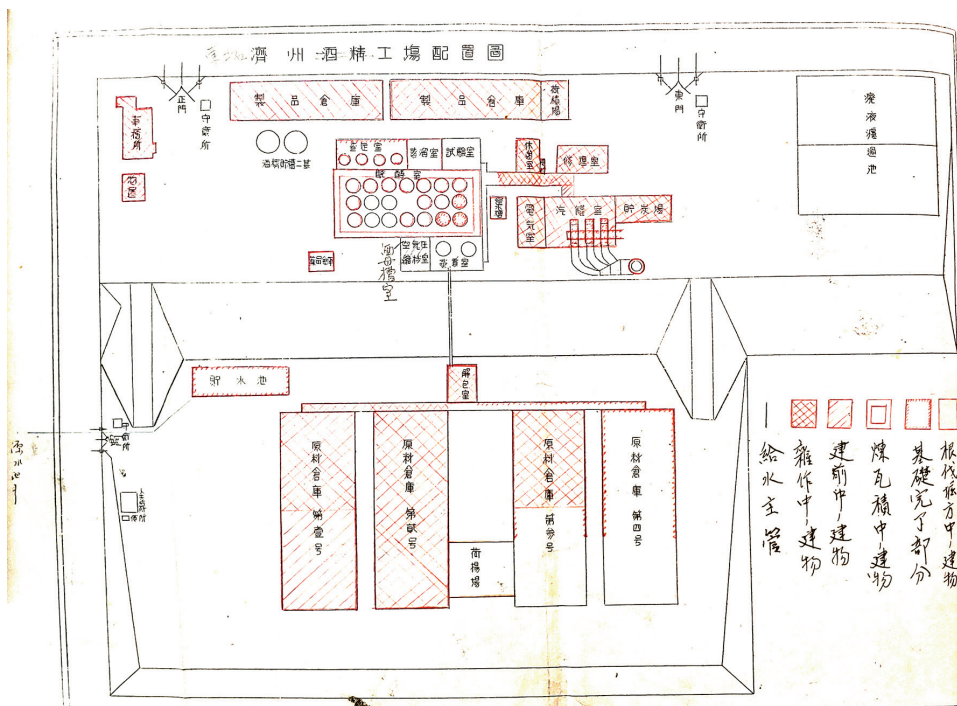
[그림 5-1]은 1939년의 제주항 확장을 시작하고 공장부지 정지(整地) 작업을 하던 단계에서 만들 설계도이다.<sup>42)</sup> 그림 오른쪽 아래의 네모난 부분이 공장부지인데, 왼쪽에 그려놓은 것처럼 단차가 커서 언덕 윗부분과 아래 부분으로 나뉜다. 윗부분은 창고가 들어서고, 아래 부분에 공장 건물과 각종 설비, 그리고 사무실, 제품창고 등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공장 바로 길 건너편이 부두인데, 오른쪽 빨간색 네모 칸이 들어 있는 부분이 새로 매립하는 매축지로 동척 전용부두로 사용되는 장소다. 왼쪽으로 길게 뻗은 부분이 다른 일반 여객과 제주도 회사들이 사용할 부두가 들어서는 곳이다.

[그림 5-1] 제주항과 공장부지 배치도



42) 濟州港 平面圖面 C1996 濟州島酒精工場敷地關係(其ノ1) (昭和14年1月 ~ 15年5月)

[그림 5-2] 공장부지 배치도<sup>43)</sup>



공장부지의 건물 배치는 나중에 다시 바뀐다. 1941년 10월 31자로 한창 건설 중이던 제주주정공장 건설 현황을 그린 공장 배치도를 보면, 공장부지는 모두 13,840평이었다. 크게 언덕 위의 5천5백평, 아래쪽 8천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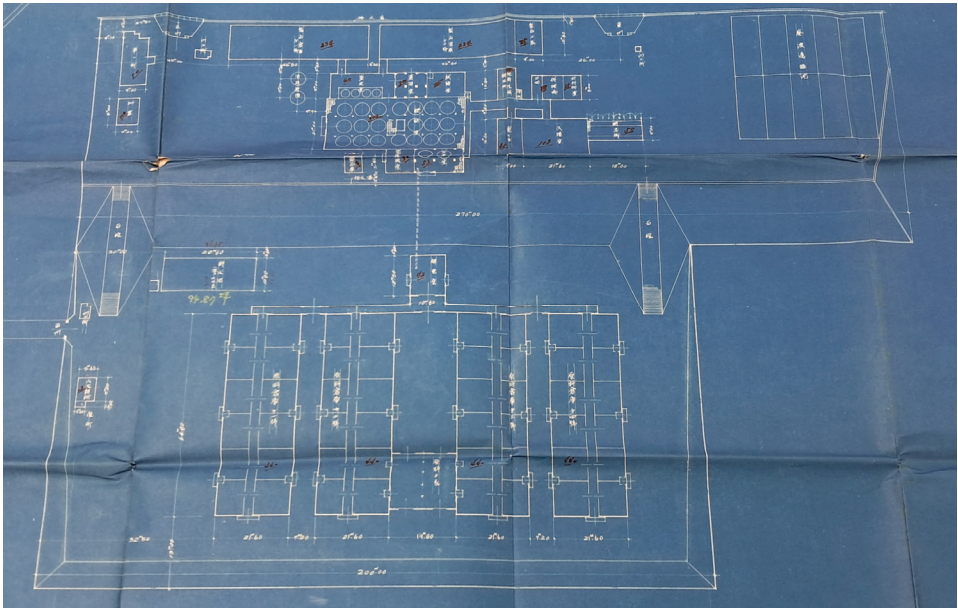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공장 건물은 증류실(蒸溜室), 증자실(蒸煮室)이 중심이고, 일부 철근을 넣은 기관실 건물과 목조로 지은 발효실(醱酵室)이 그 옆에 들어섰으며, 그밖에 사무실과 창고, 기타 부속시설, 숙사, 저수지, 술지하조(醪地下槽), 굴뚝(煙突), 착정(鑿井)으로 구성되었다.

윗부분은 창고가 있었는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배치되었다. 창고 하나가 폭 21.60m × 세로 64m(1382.4평방미터) 440평씩이었다. 서문(西門)을 들어와 뒤편 넓은 공터로 가면 창고 중간에 원료를 자동차째 측량하는 저울이 있었다. 그리고 언덕 끝에는 원료 창고에서 생고구마나 절간고구마를 공장 건물 분쇄실로 보내는 벨트가 놓여 있었다.

4개의 창고가 들어선 윗부분은 창고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훨씬 넓은 마당이 있었다. 그래서 원료인 고구마가 입하(入荷)되면 먼저 창고를 채우고, 자리가 부족할 때는 마당에 야적했다.

43) 濟州酒精工場 配置圖, C2024 濟州酒精工場關係

[그림 5-3] 공장부지 배치도



출처: 濟州島酒精工場 敷地圖 1939년 2월, C1989.

## VI. 해방 후의 주정공장

### 1. 해방 후 주정공장의 소유와 운영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다.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일제는 조선 땅에서 물러가고, 대신 미군이 들어왔다. 미군은 들어오자마자 자신들이 점령군임을 선포했다. 이때 일본인 소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미군은 조선 땅 38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미군이 차지했다. 그리고는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일본인 소유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조선 땅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던 동양척식회사도 마찬가지로 운명에 처해 있었다. 일본에서는 미군사령부가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한 식민지 지배와 경영에 관련된 주요 국책회사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 회사의 서류는 모두 봉인된 채 폐쇄정리위원회로 넘겨졌고, 각 식민지에 있던 지사와 자회사와는 연락이 끊어졌다.<sup>44)</sup>

그럼 이 때 동양척식회사 제주주정공장에 근무하던 일본인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오오코우치 가즈오(大河内一男)가 다음과 같은 증언기록을 남겨 놓았다.

제주주정공장은 조선지사 사업과(事業課)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종전을 알게 됨과 동시에 지사에 전화 연락을 했지만, 不通이었다. 연락원으로서 中井雅彦書記, 山田建技手, 張本武雄 技手補가 기범선(機帆船)을 빌려서 목포항으로 이동해서, 기차로 경성으로 갔다. 기차는 피난민으로 혼잡했고, 연착하면서 경성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날이 걸렸다. 간신히 支社에 도착해 보니, 이미 일본인 役職員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조선인 간부에 의해서 지사 전체가 운영되고 있고, 간단한 보고를 받는 것 말고는 아무런 지시도 없어, 中井, 山田 두 사원은 그대로 해직된 채로 지사의 사옥을 나오게 되었다.<sup>45)</sup>

44) 村上勝彦, 1997, 「第6部 閉鎖 機関 閉鎖機関について-「閉鎖機関とその特殊清算」を中心に」, 『1940年代の東アジア: 文献解題』,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335-349쪽.

45) 大河内一雄, 1991, 『国策会社・東洋拓殖の終焉』, 續文堂出版, 49쪽.



직원 3명이 조선지사로 간 이유는 상황을 파악하고 본사로부터 또는 상부 기관으로부터 제주주정공장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경성의 지사 사무실에는 일본인 간부와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조선인 간부가 지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니 더 이상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제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동척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을 것이고, 일본으로의 귀환 방법을 놓고 의논을 했을 것이다. 오오코우치 가즈오는 당시 경리 담당 직원이었다. 마쓰오 세이세이(松尾靑靑)의 증언을 기록해 두었다.

동척 직원은 제주읍장(일본인) 등의 행정관리들과 함께 기범선(機帆船)을 빌려서 3일 걸려 사가현(佐賀縣) 이마리만(伊万里灣)에 도착했다.

제주주정사무소의 경리책임자였던 마쓰오 세이세이씨는 조선식산은행 제주지점에 맡겨 두었던 공장 예금 약 50만 엔을 이 은행 예금 수표로 바꾸어 최종 회계장부 사본과 함께 기름종이에 싸서 몸에 지녔다.

소지품을 가지고 모친이 기다리는 후쿠오카시 집에 돌아가자마자, 동척 본사에 보고하려고 상경했다. 그러나 이미 본사는 미군 관리 하에 들어가 있었고, 지하의 창고실에서 본사 경리과원에게 수표와 회계보고서를 건넸다.

그리고 나서 마쓰오씨는 “이미 동척은 없어져 버렸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혼잡한 열차를 타고 고향 후쿠오카로 돌아오면서, 재기의 길을 찾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말하고 있다.<sup>46)</sup>

배를 전세 내서 동척 직원들과 읍사무소 근무하던 읍장 이하 행정관리들이 함께 배를 탄 것을 보면, 당시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의 일본인 직원과 제주읍장 이하 일본인 행정 직원들은 가까운 사이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방 직전까지 제주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 구체적으로 일본인들이 몇 명이나 거주했고,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표 5-1> 제주주정공장 건설사무소 직원 명단에 나와 있던 소속 직원은 22명이었고, 아마도 그 후에 인원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리담당 마쓰오 세이세이도 건설사무소 시절부터 서기(書記)로 계속 근무해온 사람이었다. 그가 왜 은행에서 50만 엔을 찾아서 수표로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행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치고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해방 후 일본인 직원들은 돌아갔지만, 일부 조선인 직원과 공원들은 일제 말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을 것이다.<sup>47)</sup> 해방 직후 제주도 주정공장의

46) 大河内一雄, 위글, 50쪽.

47) 강종국씨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내가 1927년생. 내가 주정공장에 열일곱 살에 들어갔어. 그 때 소학교

상황을 가장 잘 전해주는 자료는 <신한공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 감사보고서>와 <Audit Report on Cheju Pure Alcohol Co.(1945.8.8.-1946. 8.31.)>이다. 한글 보고서는 1946년 12월 신한공사 본부에서 파견한 한국인 감사원 박승렬과 김창기가 작성한 것이고, 영문 보고서는 미군정이 파견한 회계 감사관 Joseph Hosevally가 작성한 문서로, 해방 직후부터 1년 동안의 제주도 주정공장의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상무부 감사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이다. 현재 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몇 년 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복사를 해 와서 복사본을 소장하고 있다.<sup>48)</sup>

보고서 맨 앞부분에 공장의 역사를 적어 놓았다. 아마도 공장 간부들로부터 들은 보고를 요약한 것으로 짐작된다.

## 1 공장의 역사

공장 설비를 하던 중에 제2차 대전에 봉착하여 항공기 연료인 아세톤, 부탄을 설비로 전환하여 1944년 2월에 첫 제품을 생산하였다. 그 후 다시 일본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1944년 9월부터 주정공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왔다. 1945년 6월 공폭(空爆)으로 공장 중요 기계 외에는 대부분 파괴되거나 소실되어, 동년 10월 중순부터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약 6백만 엔을 투입하여 금년 7월말 제1차 복구공사 완료하여 8월 초순부터 조업을 개시하여 운영과 동시에 제2차 복구공사 진행 중에 있다.

### (2) 복구공사

전쟁이 끝난 다음, 모든 종업원들은 태평양전쟁 시 비행기 폭격으로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는 일에 종사했다. 외부 청부업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2차 복구 계획으로 새로운 창고를 짓고 있다. 전후에 본사에서 현금 약 5,800,000엔을 보내왔다. 그리고 1946년 10월 8일 현재까지 복구공사에 사용한 비용은 총액이 6,247,000엔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방 후 본사에서 송부하여 온 자금은 약 5,800,000円이고, 10월 8일 현재까지 복구공사에 사용한 비용은 약 6,247,000엔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나와 가지고 집안이 농촌이니까 진학도 못하고 혈 생각도 안 하고 해서 시험 봐 가지고 주정공장에 들어간 거야. 그 때 일본 놈들 시험을 봤어. 필기시험 같은 거. 주정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재료 창고 직원으로 들어갔지. 거기서 근무하다가 (해방 직전에) 산지 축항 폭격도 받고 ... 주정공장 폭격도 받고 했어요. 강종국, 2013, 「주정공장 운 전수였죠」, 『다시 하귀중학원을 기억하며-제주4·3 구술자료 총서05』, 도서출판 한울. 102쪽

48) 「신한공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 감사보고서」 1946년 12월 22일 작성.

Cheju Pure Alcohol Plant, 1945.8.-1946.8. RG331, SCAP, Office of Comptroller, Audit Division, Correspondence File, 1945-52, Box 184, File 5: Audit of NKC.



위의 내용은 모두 「신한공사 직영 제주 주정공장 감사보고서」의 내용인데, 정리하면 1945년 6월에 미군기의 공중 폭격이 있었고, 그 때 제주항과 주정공장이 모두 폭격을 당했다. 조업이 중단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뒤부터 대부분의 직원과 공원은 공장 복구 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본사에서 현금 약 5,800,000엔을 보내왔다는 점이다. 이만한 돈은 공장을 완전히 새로 짓고도 남을만한 돈이다. 이 정도 돈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내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아마도 전쟁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에 도착한 돈이라고 생각된다.

해방 직후 무수주정 제주공장은 미군정이 신한공사를 통해 접수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물론 원칙은 그랬지만, 1945년 12월 18일 지배인 손태현(孫泰鉉 - 前 新韓公社 大田支社 社員)이 공장 책임자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한국인 직원들끼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무수주정 제주공장은 해방 직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표 6-1〉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당시 주정공장의 직원내역이다. 먼저 책임자 손태현은 신한공사가 파견한 인물이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책임자 바로 밑에 적힌 사원 강재량(姜才良)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해방 전부터 주정공장에 기수(技手)로 일하던 제주사람이다. 그는 1934년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 대구사범학교를 거쳐 나고야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였다. 나중에 1952년 5월 무소속으로 초대 제주도의원에 당선, 도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런 인물이 책임자와 함께 이름이 적힌 것으로 보아 내부 직원의 대표 역할을 하던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표 6-1〉 해방 직후 제주주정공장의 직원 배치

업무부서	사원(社員)	임시용(臨時傭)	용원(傭員)	공장기술원(工場技術員)
책임자	손태현(孫泰鉉)			
사원	강재량(姜才良)			
서무계(庶務係)	안익찬(安翊燦)	김계옥(金季玉) 이산구(李山九) 강덕순(康德順)		
경리계(經理係)	안익찬(安翊燦) 전군찬(田君燦) 김애숙(金愛淑)	고원규(高元圭)	안여찬(安汝燦)	
노무계(勞務係)	김순우(金淳宇)	김진한(金鎭翰)	이윤석(李允錫)	
자재계(資材係)	홍성무(洪性武)	문재욱(文在郁)	김호택(金鎬澤) 윤덕신(尹德信)	

업무부서	사원(社員)	임시용(臨時傭)	용원(傭員)	공장기술원(工場技術員)
원료계(原料係)	좌창유(左昌有)	강문정(姜文靜) 박기수(朴基壽)	고창규(高昌奎) 강여옥(姜汝玉)	
발효증자계(醱酵蒸煮係)	김종률(金鍾律) 현병훈(玄柄訓)	문성수(文成壽)		
증류계(蒸溜係)	고진후(高鎭厚)			
시험실(試驗室)	김병협(金炳協)			
전기계(電氣係)		강평일(姜平日)		현국찬(玄國燦)
기관기기계(汽罐氣機係)				현시웅(玄始雄) 박정우(朴禎雨)
토목계(土木係)				강원기(姜元基)
수리수도계(修理水道係)				부동원(夫東元)

당시 종업원 수는 사무직원 30명, 공원(工員) 253명으로 합계 283명이었으며, 매월 지불하는 인건비는 약 450,000円이며, 1인당 약 1,600엔 정도였다고 한다. 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당시의 증언을 참고한다면,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높은 임금 수준이었을 것이다.<sup>49)</sup>

주정공장 창고에는 많은 고구마가 저장되어 있었다. 1946년 2월 제주도사로 부임한 박경훈(朴景勳)은 8월 1일 전라남도에서 제주도(濟州島)가 분리되어 도로 승격되면서 초대 도지사가 되었다. 그는 당시 제주도의 심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제주주정공장의 고구마를 제주도민의 식량 대용으로 배급되도록 하였다. 감사보고서에는 해방 후 식량으로 처분한 원료 고구마가 제주도내에 배급된 것이 207,005관이고, 도외로 반출한 것이 352,789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외 반출 판매가격이 관당 7원 36전이지만, 도내 배급된 것은 관당 3원83전으로 절반 이하의 가격이었다.

1946년 8월 초부터 조업을 재개했는데, 1일 생산고는 15드럼이라고 하였다. 12월 감사 때까지 53일간 작업하여, 239드럼을 생산했으며, 그 중에서 서울로 30드럼을 올려 보내, 재고품은 209드럼이 남았다고 보고 하였다.

49) “주정공장은 왜정시대 때는 동척회사라고 했어. 해방 후에는 신한공사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주정공사가 됐어. 회사가 커서 제주도민 전체 세금의 열배를 냈어. 나는 거길 들어갔어. 월급이 그렇게 좋았어. 경찰로 치면 경위 월급을 내가 받았어. 몇 천원이나 되었지. 토벌도 안 가고 훈련도 안 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을 거야? 그래서 우리 식구를 나 혼자 먹여 살린 거라.” 강동화, 2010, 「주정공장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려」, 『갈치가 갈치 팔랭이 끊어 먹었다 할 수밖에- 제주4·3 구술자료총서01』, 제주4·3연구소, 57쪽.

## 2. 제주4·3과 주정공장

4·3이 일어난 후에도 주정공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 1947년 4월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정부가 파견한 책임자는 이종렬(李鍾烈)로 바뀌어 있었다.<sup>50)</sup> 그는 함경도 이원 출신으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경성지부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후에는 동척관리위원회의 기획업무에 참가하였다. 그는 1946년 6월 1일 미군정청 발령으로 광업부장이 되고, 1947년 3월에 제주주정공장이 신한공사에서 군정청 상무부로 이관되면서 책임자로 온 것으로 생각된다.<sup>51)</sup> 그는 1950년 2월에 이종렬(李鍾烈) 신한공사 간부가 제주주정공장 지배인으로 취임하였다는 기사도 있는 것을 보면, 책임자 자리에 계속 있었으며, 나중에 정부가 제주주정공장을 불하할 때 불하받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4·3 시기 제주주정공장 책임자는 이종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주정공장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발전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제주 시내 주요 건물에 송전을 담당하고 있었다. 회사 직원이었던 강동화는 “4·3이 일어난 후에는, 우리는 책임이 뭐냐면 전기를 잘 관리하는 거였어. 요새는 한전 전기지마는 그 때는 우리 회사 전기를 돌려야 제주읍에도 보내고 군인 경찰에 다 보내고 했어. 그러니 어쨌든지 전기 안 되면 안 되니까 주정공장은 ‘토벌도 가지 말라, 경비도 가지 말라, 회사만 잘 지키라.’고 토벌대에서 부탁하는 거주게. 전기만 잘 지켜 달라고.”<sup>52)</sup>

1949년에 산에 올라갔다가 귀순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수용할 때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진 직후에 예비 검속자들을 수용할 때에도 공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 1949년 3월 정부가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토벌 작전을 진압과 선무 병용작전으로 전환했다. 특히 유재흥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여 정착하게 되었다.<sup>53)</sup> 귀순 공작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경찰서 유치장은 물론 각지의 임시 수용소에 수용되어 지냈다.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수용자들은 많은 고초를 겪었다. 이곳에 수용됐던 사람들 중에서 노약자들은 대부분 풀려났지만, 무장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받은 청장년들은 재판 후 타지방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그 뒤 한국전쟁 직후에 또 다시 예비검속 바람이 불면서 제주도 지역에서 주민들을 예비 검속하여 경찰서 및 지서 유치장, 그리고 제주읍에 소재한 주정공장 창고 등에 구금했다.

50) Cheju Pure Alcohol Plant, 1945.8.-1946.8. RG331, SCAP, Office of Comptroller, Audit Division, Correspondence File, 1945-52, Box 184, File 5: Audit of NKC.

51) 金榮治, 2000, 『20世紀 濟州人名事典』, 제주문화원, 348쪽.

52) 강동화, 2010, 「주정공장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려」, 57쪽.

53) 조정희, 2013,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성격」,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1-12쪽.

증언에 따르면, 두 번 총살이 집행됐다. 처음은 8월 4일로, 제주경찰서와 주정공장에 수감돼 있던 예비 검속자 수백 명을 제주항으로 끌고 가 배에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 수장했다. 장시용은 밤 9시경 50명씩 태운 차 10대가 부두에 도착해 알몸 차림의 500여 명의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갔다 두 시간 후에 빈 배로 돌아왔다 증언했다. 두 번째 집행은 8월 19일 밤부터 뒷날 새벽까지로 이때에는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예비 검속자 수백 명을 트럭에 싣고 제주비행장으로 가 총살해 암매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54)</sup>

주정공장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많지만, 몇 가지만 보자.

A. 양씨가 함덕마을로 내려간 것은 1949년 4월께로 추정된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함덕리 헌병대 군인들에게 갔는데, … 헌병대에서 한 일주일 간 조사를 받은 다음에 동척회사(제주주정공장)로 이동시켜 버리더라고. … 우리 형님뻔 된 분이 동척회사 직원으로 있었어. 그래서 면회를 와서 음식도 사주고 형님한테도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 동척회사에서 한 달쯤 있다가 실어서 갔지. 아주 큰 배였는데, … 3백 명 이상은 탄 것 같아. 육지로 배에 실려 갈 때도 죽이려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 고개도 못 들었으니까. 인천 간 후에 서류를 가져간, 담당 순경인지 간수인지 그 사람이 서류 인계하면서 ‘5년에 7년’하는 거야. 그때야 징역형이 받아졌는지 알았지.”<sup>55)</sup>

B. 4·3사건 뒤 해부터 주정공장 창고에 사람들을 많이 수용했어. 절간 감자라는 걸 막 수천 가마를 저장했던 그 창고에 사람들 몇 백 명씩 수용을 한 거라. 밥도 주먹밥 해서 주고 했어. 나고 거기에 올라가 봤지. 아는 사람도 여럿이 있어. 아는 사람이 보이니까 담배도 하나씩 주고 했지. 그 사람들이 입에 손을 대는 신호를 보내면 나는 담배가 필요한 것임을 알아듣고 남들 모르게 담배 두어 갑 사주기도 했어.

그 사람들 죄인 아니었어. 그저 동광에 살다가 억울하게 걸린 죄라. 놈들은 폭도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가둬 놓았다가 재판도 없이 그냥 막 육지로 실어간 거라. 감시는 한청 대원들이 감시를 했어. 경찰도 하나 둘씩 가긴 했고, 군인들도 간간이 오긴 했지. 철조망은 치지 안 해도 50m 안에 전기를 돌렸지. 전기도 두르고 불도 흰히 켜고, 50m에 하나씩 보초가 있어서 한청 대원들이 지키지.

그 때는 한 2백 명 쯤 수용한 것 같아. 나도 두어 번 가서 보니까 우리 동광 사람들도 두엇 보이고, 여자들도 두엇 보고, 젊은 아이도 우리보다 아랫사람도 보이고, 우리 부락 사람이니깐 알지.<sup>56)</sup>

54) 김창후 외, 2021, 『4·3 수장, 그 흔적을 찾아서』, 제주4·3 평화재단, 40쪽.

55) 양근방, 2002, 「말해서 몰라, 내가 겪은 세월을」, 제주4·3연구소 편,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56) 강동화, 2010, 「주정공장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려」, 『갈치가 갈치 꼴랭이 끓여 먹었다 할 수밖에- 제주4·3 구술자료총서01』, 제주4·3연구소, 60쪽.

C. 보름 남짓 학교건물에 갇혔던 시어머니와 문순선은 제주시 건입동의 주정공장으로 옮겨졌다. 주정공장은 수용소였다. 귀순한 주민들은 이곳에서 석방되거나, 다른 지방 형무소로 이송됐다. 주정공장에서는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는 조사만 받았을 뿐, 심한 취조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작은 방 한 칸에 수십 명, 수백 명을 몰아넣은 수용소 환경은 열악했다. 낮에는 밀착해 앉아 시간을 보냈고, 잠잘 때는 발을 뺄지 못했다.

그런 환경에서 문순선은 1949년 6월6일 송승문(69)을 낳았다. 한밤중에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도 방 안의 수용자들은 대부분 몰랐다. “시어머니가 같은 방에 있던 아는 아주머니를 가까이 붙렸어. 그 아주머니가 내 허리를 ‘꼭’하고 감싸 안으니까 아기가 나왔어. 오래 아팠으면 같은 방 사람들이 다 깰 텐데, 다행이었지.” 아기를 낳자 시어머니는 입고 있던 몸배(일바지)를 벗어 산모와 아기를 감쌌다. 미역국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어려웠다. 방문을 지키던 남자조차 “어떻게 아무런 기척도 없이 아기를 낳았느냐. 깨어 있었는데도 아기 낳는 걸 몰랐다”고 했다.

D. 계엄령이 해제되니까 같이 간 식구들하고 1949년 4월에 내려와 동척회사에서 조사를 받았지. … 누이동생이나 집사람은 조사받았지만, 여자니까 석방됐지. 동척회사에서는 한 20일 있다가 재판받았는데, 그동안 두 번 조사를 받았어.<sup>57)</sup>

E. 동척회사에서 한 달 살아졌던가? 그냥 너른 방에 거기서 밥해주면 먹고, 또 평일에는 낮에 나무하러 가고. 그 동척회사 위에 나무하러 갔던 기억은 있어. 그 나무로 밥을 했는지 뭘 했었는지, 큰 가마솥 얹어서 밥을 했었어. … 폭도를 밥 해먹었다고 밀고가 들어가니까, 그 신고로 내가 형무소에 갔지.<sup>58)</sup>

### 3.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제주주정공장의 운명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시수도 부산에서 정부는 1950년 12월 17일 제주주정공장 귀속재산을 불하했다. 이때 불하 받은 사람은 책임자로 있던 이종렬(李鍾烈)이었다. 그가 제주주정공장 사장에 취임해서는 강재량을 전무로 기용해서 공장운영을 맡겼다. 그는 1953년 제주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선까지 했다. 그는 1957년 6월에는 제주신문사 사장이 되어 2년 동안 신문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가 공장 조업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종렬씨가 운영하는 제주주정공

57) 양경찬, 2002, 「우리 내인 고생만 한 거라」, 제주4·3연구소 편,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163-164쪽.

58) 김경인, 2010, 「이제까지도 가슴에 다 남아 있어」, 『갈치가 갈치 골랭이 끊어 먹었다 할 수밖에- 제주4·3 구술자료총서01』, 제주4·3연구소, 185쪽.

장이 1959년 초부터 주세(酒稅)를 납부하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되자, 세무당국은 회사의 일체 재산을 압류하고, 제주지방법원이 여러 차례 공매 입찰에 부쳤으나, 모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sup>59)</sup>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1959년 부산 대선발효공업 주식회사가 인수 운영했다는 점만 알려져 있다.

대선 발효공업 주식회사는 이미 1950년경부터 무수주정 생산을 위해서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상공부에서는 석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수주정 생산을 고려하고 있었다. 대선 발효 공업주식회사 박선기 사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앞장서서 무수주정 생산을 시도한 것이다.<sup>60)</sup>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주정을 인수하게 되었을 것이다.

대선 발효공업 주식회사가 인수한 다음부터 해방 전후부터 계속 근무해오던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고 나가고, 대신 간부들은 대부분 부산의 대선발효공업 주식회사 사람들로 채워졌다. 사장은 나중에 이복동생 박경규로 바뀌었는데, 그가 중심이 되어 대선 발효가 크라운맥주를 인수했다. 문제는 인수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1968년 3월 갑자기 사망하면서부터 발생하였다. 회사 대출이 끊기면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해결책으로 자회사인 제주주정공업주식회사와 1962년부터 시작했던 제주컨트리클럽을 묶어서 팔게 되었다.

1969년에 새로 인수한 사람은 재일제주인 기업가 백창호(白昌鎬)였다. 그는 주정사업과 골프장 사업에 관해서 사전 지식이 없었지만, 제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인수한 것이다. 그는 제주주정공장 운영을 동생 백창석에게 맡겼다. 절간고구마와 당밀(糖蜜)로 주정을 생산하기도 하였는데, 원료 구입에 차질을 빚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점점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종업원 임금도 밀리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었다. 회사 내에는 대선발효 시절인 1965년에 화학노조 제주지부를 결성하여 활동 중이었다. 1971년 12월부터 공장 가동을 중지했다. 그러자 노조는 회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이면서 밀린 임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2년 8월 백창석 사장이 서울로 도피했다. 노동조합 임원들이 서울로 올라가 그를 찾아내 연금해 놓은 상태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sup>61)</sup> 그 뒤 회사는 공매에 부쳐졌고, 9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1973년 1월 결국 제주은행장 김봉학(金鳳鶴)에게 2억5천 150만원에 팔렸다.<sup>62)</sup>

주정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던 재일제주인이 무작정 인수했다가 3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된 제주주정공장은 또 다시 재일제주인에게 팔렸다. 김봉학 은행장도 일본에서

59) 『조선일보』 1959년 10월 16일 ; 『조선일보』 1960년 6월 4일 ; 『경향신문』 1960년 12월 2일 ; 『경향신문』 1961년 3월 18일.

60) 代用燃料의 寵兒 ‘無水酒精’ 生産 五個年計劃 樹立, 『工業新聞』 1950년 3월 31일.

61) 勞賃未받은 従業員들 工場主감금 농성, 『경향신문』 1972년 9월 7일  
밀린 노임 달라 회장 연금, 『중앙일보』 1972년 9월 9일.

62) 제주주정 김봉학씨가 인수, 『중앙일보』 1973년 1월 11일.

돈을 벌었지만, 그리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1969년 제주은행을 설립했지만, 주정사업에 대해서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시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1년 넘게 임금이 밀리고 공장이 멈춰서 있었는데, 종업원들이 공장 기계 부품들을 하나 둘 빼서 팔아버린 것이다.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사라진 부품들을 보충해야했다. 김봉학은 이 일을 측근 한○○에게 맡겼다. 그런데 그가 필요한 부품을 채우기 위한 비용을 받아간 뒤 사라져버린 것이다. 결국 기계 부품은 보충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진로에게 임대했다.

1973년 10월 임대를 받은 진로소주주식회사는 이후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했다. 이 시기 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주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명성이 높았다. 이 시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고구마 원료 생산이 자꾸만 줄어들면서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장을 돌리면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 문제였다.

1960년대부터 전국적인 공해 반대운동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가 되면 한국사회에서 공해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오늘날 환경운동의 초기형태였다고 보면 된다.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장이 많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언론도 공장의 오폐수 처리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공장이었던 주정공장이 그 대상이 된 것은 당연했다.

사실 주정공장이 가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분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일제 말기는 물론 1970년대까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또 높게 솟은 굴뚝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는 주변 마을 사람들이 빨래는 내다 걸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제주도에 유일한 대형 공장이고, 그밖에는 거의 큰 공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정생산이 일본 제국의 중요 국책사업이었고, 해방 후에도 권위주의 정권이 이어지면서 비판적인 발언이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기도 했다. 그런데 1974년이 되면 정부가 나서서 해안 오폐수 축정을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이 때문에 공장 측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고 “곧 폐수 정화 시설과 찌꺼기 제거 시설을 해 어민들의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지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sup>63)</sup>

건디다 못한 진로소주는 1983년 조업이 완전히 중단하고 임대를 마무리했다. 1989년 5월 12일에는 공장의 상징인 굴뚝 해체되었다. 천마물산은 1993년 공장 대지에 3,293㎡ 규모의 창고를 건립하였으며, 고구마 저장 창고가 있던 부지에는 아파트 8동을 건립하였다.<sup>64)</sup>

63) 濟州港근해 廢水에 漁場20萬平方m 오염, 『동아일보』 1974년 1월 10일.

漁場 대규모 汚染 제주주정공장 廢水에, 『조선일보』 1974년 3월 12일.

64) 고광명, 2015, 「재일(在日)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일본근대학연구』 제50집, 한국일본근대학회, 492쪽.

## VII. 맺는말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제국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첨병이었다. 1930년대가 되면 일본 공업의 규모도 커지고, 중일전쟁까지 시작하면서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석유였다. 당시 석유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미국과의 대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낸 석유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석유와 알코올 강제 혼용이었다. 물론 이 방법을 일본이 발명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유럽에서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1930년대 후반부터 석유 대체물로 알코올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총독부는 무수 알코올 생산 공장을 제주도에 짓도록 동양척식회사에 권유하였다. 신의주에 이어 두 번째 알코올공장이었지만, 국책회사인 동양척식회사는 사기업과 달리 국가 이익과 회사 이익을 동일시하였다.

1937년 전라남도가 기안한 제주도개발계획에는 제주산업개발주식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무수주정을 생산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모두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이 계획을 중단하고 조선기계소주연맹에게 무수주정 생산을 맡기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결국 조선의 기업 중에서 책임자를 찾지 못한 조선총독부는 신의주에 이어 제주의 주정공장도 동양척식주식회사에게 맡겼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교통이 불편하고 농지가 별로 없는 제주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정공장을 짓게 되면서 갑자기 제주도 최대의 기업이 되었다. 제주항 확장사업도 조선총독부가 나서서 동척의 주정공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40년에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전쟁이 확대되면서 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러자 육군이 손을 뻗어왔고, 주정공장은 결국 육군과 손잡고 생산물도 부탄올 생산으로 변경하였다. 그 덕분에 공장 건설 자재를 우선 지원 받아 1944년 2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 속에서 주정공장은 1945년 6월 미군 폭격기의 공중 폭격을 받아 파괴되었다.

제주주정회사는 해방 후 복구되었지만, 애초부터 군수품 생산을 위해서 시작한 회사이고, 전쟁이 끝나면서 정책 목표가 실종된 회사였다. 그래서 술 원료로서의 주정을 생산하



는 회사가 되었고, 한국전쟁 기간에 불하되었는데, 그 때부터 1980년대 초까지 주정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제주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인들이 원하는 개발을 앞세우면서 계획을 추진하였다. 물론 그 중에서 주정공장을 세우고, 그 원료인 고구마를 대량 생산하는 계획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 속에서 국책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조선총독부와 협력하여 일본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호응하는 공장을 제주도에 세운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직영했던 무수주정 공장은 일제 말기는 물론 해방 후에도 제주도에서 가장 큰 공장이었다. 가장 많은 직원, 공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발전기를 보유하여 한동안 시내 전력 공급을 담당하기도 했던 회사였다. 큰 창고를 갖고 있었기에 4·3 때는 물론 예비검속 때도 많은 제주도민을 수용하는 수용소 역할을 했다.

이제 주정공장을 말해주는 흔적은 거의 다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4·3의 아픔을 말해주는 기념탑이 들어섰고, 기념관도 생길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주정공장 창고에 갇혔다가 고난을 당한 분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곳이 제국 일본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주도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기억의 장으로 남길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태경, 1995, 『(東洋拓殖會社의) 조선경제 수탈사』, 계명대학교출판부.
- 고광명, 2015, 「재일(在日)제주인의 산업경제에 대한 공헌」, 『일본근대학연구』 제50집, 한국일본근대학회.
- 고영철, 2020, 「동척회사..건입동 주정공장(무수주정제주공장)&육군 제5훈련소 터」, 『제주환경일보』 2020년 3월 28일.
- 權寧旭, 1968, 「東洋拓殖株式會社と宮三面事件」, 『朝鮮研究』 8, 朝鮮學會.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5, 『수집사료 해제집 9 : 東洋拓殖株式會社 職員 名簿, 新韓公社 내부자료』, 국사편찬위원회.
- 김대래, 2004, 「東拓移民의 전개와 한국인의 대응」, 『경제경영연구』 5집, 신라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 김석준, 1986,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업전개 과정」,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2집』, 문학과지성사.
- 김성민, 2019, 「나석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학논총』 51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金容燮, 1972, 「한말·일제하의 지주제-사례2 載寧 동척농장에서의 지주경영의 변동」, 『한국사연구』 제8집, 한국사연구회.
- 金榮治, 2000, 『20世紀 濟州人名事典』, 제주문화원.
- 김창후 외, 2021, 『4·3 수장, 그 흔적을 찾아서』, 제주4·3 평화재단.
- 김호범, 1997,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금융활동에 관한 연구」 『경제학논집』 6권 1호.
- 배석만, 2014, 「전시체제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동원 구조와 투자동향 분석」, 『지역과 역사』 No.34, 부경역사연구소.
- 손경희, 2002, 「1920년대 경북지역 동양척식주식회사 및 일본인 농장경영」, 『계명사학』 13집, 계명사학회.
- 安秉珪, 1976, 「東洋拓殖株式會社の土地收奪について」, 『社會科學年報』 7, 龍谷大學社會科學研究所.
- 안병태, 1982, 「조선인 지주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경영방식의 차이」, 『한국 근대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백산서당.
- 李圭洙, 2000, 「전남 나주군 '궁삼면'의 토지소유관계의 변동과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집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 이규수, 2021,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수탈과 궁삼면 토지 탈환운동』, 동북아역사재단.
- 이윤갑, 2007,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대구사학 87, 대구사학회, 2007.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①』, 도서출판 전예원.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⑤』, 도서출판 전예원.

- 제주4·3연구소 편, 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 제주4·3연구소 편, 2013, 『다시 하귀중학원을 기억하며』, 도서출판 한울.
- 제주4·3연구소 편, 2019,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도서출판 각.
- 조기준, 1977, 「日人 農業移民과 東洋拓殖株式會社」, 윤병석 외 편, 『한국근대사론 I』, 지식산업사.
- 조명근, 2020, 「戰時期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금 조달과 운용 실태」, 『亞細亞研究』 63권 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조정우, 2018, 「지역조사와 식민지의 경계시대 — 1919년 전후 동척과 조선은행의 간도조사—」, 『만주연구』 26호, 만주학회.
- 조정희, 2013,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지역 예비검속과 집단학살의 성격」,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주봉규, 1991, 「동척의 이민 사업추진에 관한 연구」 『동아문화』 제29집.
- 진관훈, 2004, 「일제하 제주도 개발」, 『근대 제주의 경제 변동』, 도서출판 각.
- 최원규, 2000, 「東洋拓殖株式會社の 이민사업과 동척이민 반대운동」, 『韓國民族文化』 제16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허호준, 2008, 「태평양전쟁과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 조성윤 역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미애, 2020, 「일제강점기 제주 산지향 축항 연구」,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현미애, 2021, 「일제강점기 제주 주요 항만의 축항과 영향」, 양정필 외, 『근현대 제주 사회의 변동과 제주인의 삶』,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 管間誠之助, 1975, 「本格焼酎製造業100年の軌跡」, 『日本醸造協會雜誌』 70卷11号, 日本醸造協會.
- 郡島和彦, 1973, 74, 「東洋拓殖株式會社の設立過程(上・下)」, 歴史評論 282·284.
- 大河内一雄, 1981, 『遙かなり大陸：わが東拓物語』, 續文堂出版.
- 大河内一雄, 1982, 『幻の国策会社・東洋拓殖』, 日本經濟新聞社.
- 大河内一雄, 1991, 『国策会社・東洋拓殖の終焉』, 續文堂出版. 1991.
- 岩間敏, 2015, 「開戦決定と人造石油—何故、日本に人造石油工業は成立しなかったのか—」, 一橋大學大學院博士學位論文.
- 岩間敏, 2016, 『日米開戦と人造石油』, 朝日新聞出版.

- 岩間敏, 2018, 『アジア・太平洋戦争と石油』, 吉川弘文館.
- 溱照宏 外, 2021, 『國策會社の經營史 -臺灣拓殖から見る日本の植民經營』, 岩波書店.
- 村上勝彦, 1997, 「第6部 閉鎖 機関 閉鎖機関について -「閉鎖機関とその特殊清算」を中心に」, 『1940年代の東アジア: 文献解題』,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335-349頁
- 河合和男 外, 2000, 『國策會社・東拓の研究』, 東京, 不二出版.
- 黒瀬郁二, 2003, 『東洋拓殖會社-日本帝國主義とアジア太平洋-』, 日本經濟評論社.

# Abstract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Anhydrous Alcohol Factory in Jeju Island directly managed by Oriental Development Company(東洋拓殖株式会社)

CHO, Sung Youn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hereinafter called as Dongcheok)’ was the tools of Empire Japan. In the 1930s, the scale of Japanese industry grew and the Sino-Japanese War began, and energy emerged as an important problem. The most important of all was oil. At that time, most of the oil was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as getting worse. So the way to solve the oil shortage that we found was to use a forced mixture of oil and alcohol. Japan began mass-producing alcohol as a replacement for oil in the late 1930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recommended Dongcheok to build an anhydrous alcohol production plant on Jeju Island. Although it was the second alcohol factory after Sinuiju. Dongcheok equated national and corporate interests, unlike private companies.

Dongcheok planned to complete the factory and produce products in 1940, but construction was delayed due to the expansion of the war. Then Japanese Army reached out. The anhydrous alcohol factory was changed to a butanol production plant in partnership with the Army. Thanks to this, production began in February 1944 with preferential support for factory construction materials. However, in the aftermath of the war, the liquor factory was destroyed by massive air bombardment in June 1945.

After liberation, the destroyed factory was restored. The factory was sold to civilians under the control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t was a company that started from the beginning with the production of munitions in mind, and the policy goal was missing as the war ended. And it was sold during the Korean War, and abnormal management continued without finding its owner, and eventually closed.

The anhydrous alcohol Plant, which was directly managed by Dongcheok, was the largest factory in Jeju Island not only at the end of Japan but also after liberation. It was the company that hired the largest number of employees, parks, and had power generators and was in charge of supplying electricity to the city for a while. Because it had a large warehouse, it served as a camp to accommodate many Jeju residents during the preliminary inspection as well as during the April 3rd period.

Now, almost all traces of a factory have disappeared. And a memorial tower was built on the site to tell the pain of the April 3rd, and a memorial hall will be built. Of course, through this, we will remember those who were trapped in a anhydrous alcohol factory warehouse and suffered. But at the same time, we will need to leave this place as another place of memory to show how Imperial Japan tried to use Jeju Island to satisfy its greed.

연구진

연구책임

조성윤

제주학연구 79

## 동양척식회사 직영 제주도 주정공장의 설립과 운영

발행인 || 김순자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TEL.(064)726-5623 FAX. (064)747-6140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9-11-977601-6-7 9306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